

리아호나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빛
찾기, 2~16쪽

경건을 통해 계시 받기, 26쪽

'히필이면 왜 나아'라고 묻는 이유, 30쪽

전 세계 24개국의 서로 다른 성탄절 전통,
친8쪽





“성탄절 시기에는 물론이고 늘 우리는 사랑으로 함께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또한 그러한
결속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감미로운 확신을 받고
싶어합니다. 영생의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가장 큰 은사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4:7 참조) 이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그것은
구주의 탄생과 속죄와 부활이라는 선물입니다.”
“성탄절과 우리의 본향”, 2쪽 참조



성인

제일회장단 메시지

2 성탄절과 우리의 본향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방문 교육 메시지

25 애정 어린 봉사로 보살피십시오

특집 기사

16 자매들이 전해 준 사랑 마리나 페트로바
방문 교사들 덕분에 그해 성탄절은 다른 때와는 다른 성탄절이 되었다.

18 스테이크 회장이 받는 영적인 은사
닐 엘 앤더슨 장로
스테이크 회장은 주님에게서 부름을 받아 자신이 감리하는 지역에서 성역을 베풀도록 열쇠와 영적인 권능을 부여받는다.

26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 로버트 시 옥스 장로
우리의 태도와 행동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 즉 그분에 대한 존중과 사랑, 경외심이 드러난다.

36 일의 축복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일은 축복이자 계명이며, 주님은 이 계명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도우신다.

교회 본부 기사

41 후기 성도의 소리
병약하여 누워 있는 회원에게 성탄절의 기쁨을 가져다 준 청년들;
성탄절에 받는 선물을 포기한 어린이들; 교수에게 간증을 전한 학생; 죽어 가는 남동생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운 자매; 한 남성이 드린 기도 응답이 된 어린아이의 작은 행위

48 이번 호 활용하기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과 이번 호의 주제들

표지
앞: 피신, 로즈 맥토 돌, Church History Museum 제공.
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거스터브 도레가 도안

청소년

특집 기사

8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구주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에 담긴 통찰력

10 사랑의 선물 카스트미어 오코로
과연 집주인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을 달갑게 받아들일까요?

12 “제 명의 왕들” 웬디 케니
어린 예수를 방문했던 박사들은 누구일까요?

30 왜 나야? 엘리자베스 퀴글리
내 삶에서 만사가 순조로웠다. 그런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다.

교회 본부 기사

24 포스터: 할렐루야!

34 질의응답
제 부모님은 교회 회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로니 클라크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누가복음 1:30~32)

2009년 12월호, 제46권, 제12호
리아호나 04292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다이더 예프 우호토도로프

심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패리, 라셀 엠 넬슨, 딸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블러드,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엠 앤더슨

편집인: 스펜서 제이 콘디

고문: 키스 케이 힐버그, 요시히코 가쿠찌, 톨 비 파이퍼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할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울슨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튼

리렌 포터 콘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엘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제이 오데커, 주디스 엠 팔러, 조슈아 제이 퍼키, 제드 이 패리스, 전 핀보우, 리처드 엠 롬니, 돈 엘 셸, 제인 토마스, 폴 헨더슨, 줄리 워델

선임 비서: 로벨 튜셔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엘리 알 이로우, 콜레트 네베커 오운,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슨, 킴 핀스타터,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스톱트 엠 유이, 지니 제이 닐슨

사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유크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권: 제521호, 제46권, 제12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9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장 동 환

편집인: 박 승 호

번역 책임자: 조 현 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감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5,000원, 권장 가격은 500원입니다. 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잡만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리투아니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09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December 2009 Vol. 33 No. 12.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어린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제일회장단 성탄절 메시지

친2 놀라움의 이유

특집 기사

친4 초등학교 예절 안 핀버러

친8 전 세계의 성탄절

채드 이 파레스와 사라 브레이스웨이트

친10 템플 스퀘어의 성탄절

교회 본부 기사

친7 색칠하기

친12 함께 나누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약할 거예요

첼렐 에스플린

친14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모범



친구들 표지
삽화: 짐 매드슨



이번 호에 숨겨진
노르웨이 정의만
만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의를
선택하듯이 올바르게
페이지를 선택해
보세요!



애독자 편지

선교 사업의 결실

2008년 9월호 리아호나 32쪽에서 로마 광장 앞에서 있는 청남과 청녀 사진을 보고는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저는 1977년에 이탈리아에서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전도하던 중에 저와 제 동반자는 정말 굉장한 두 아이를 만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들 이름은 알베르토와 마시모 드 피오였는데, 이후에 모두 침례를 받았습니. 그런데 그 기사에 나온 드니즈 드 피오는 바로 마시모의 딸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더구나 마시모는 이탈리아 로마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더군요. 알베르토는 지금 캐나다에서 지부 회장으로 봉사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복음으로 맺은 결실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을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오스카 블랑크, 아르헨티나

영혼에 스며드는 기쁨

슬픈 시기가 찾아오면 리아호나를 펴서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읽게 됩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영혼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잡지가 있는 것에 대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리아호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리아 엘시 윌터로 오류엘라, 콜롬비아

의견이나 제안 사항은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정하기 위해 내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성탄절과 우리의 본향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어린 시절에 들었던 노래가 있는데, 성탄절과 집에 관한 노래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전쟁이 한창이어서 많은 이들이 집과 가정을 떠났고,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생에서 다시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성탄절 시기에 학교를 가다가 어느 집 창문에 내걸린 금빛 별이 새겨진 작은 국기를 보면서 집과 가족에 대해 느꼈던 감흥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곳은 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한 여자 아이의 집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오빠는 저보다 나이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지만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부모님과도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분들이 느꼈을 상실감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 집에 오면 따뜻하게 반겨 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절 기간에 거실에 있는 라디오를 켜면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그 노랫말과 가락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몇 마디 노랫말에 마음이 뭉클해져,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마음속으로 찾아들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부모님과 형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마음속에서 느꼈던 소망이 단지 제가 누리고 있던 가족 생활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있고 싶거나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는 느낌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제가 있게 될 장소와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상상하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성탄절에는 집에 머물리라 꿈속에서라도 그렇게 하리니”¹ 이 노랫말은 아직도 제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행복했던 어린 시절,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성탄절 트리를 장식하던 그 집은 대부분 옛모습을 간직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허락을 받아 라디오가 있던 방과 우리 가족이 성탄절 트리 주위로 모였던 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마음속에 있던 소망이 단지 집에 있고 싶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분 덕분에 성탄절 기간에 집(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소망은 제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었으며, 단출한 우리 가족이 옛 시절에 그 집에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따스한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느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에 대한 염원

성탄절 시기에는 물론이고 늘 우리는 사랑으로 함께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또한 그러한 결속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감미로운 확신을 받고 싶어합니다. 영생의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가장 큰 은사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4:7 참조) 이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그것은 구주의 탄생과 속죄와 부활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함께하고 영원히 가족으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은 바로 구주의 삶과 사명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꿈이 실현되려면 큰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아 회개하고 침례 받고 하나님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킬 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신앙에 이르려면 필멸의 삶에 밀려드는 시련을 용감하게 견뎌 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스러운 아들의 환영을 받으며 꿈에 그리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생에서도 그날이 오리라고 확신하며 본향에 도달할 때 느끼게 될 기쁨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 구주의 탄생을 경축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기쁨을 맛볼 특별한 기회를 맞습니다.

약속된 기쁨 찾기

우리 중 많은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복음과 영생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파멸하려고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가난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일거나 가족이 아예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여 우리 앞에 놓인 약속된 기쁨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 본향에 모이는 사람들은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데, 특히 구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필멸의 자녀들이 지은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탄절 기간이 오면 구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자 하는 소망이 더욱 커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한 용서받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14~15 참조) 용서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데 필요한 도움은 대부분 자신이 받은 상처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찾아옵니다.

용서하는 데 필요한 힘을 달라는 기도에 응답을 받고 그에 따라 실천하면 어깨를 짓누르던 짐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무거운 짐을 이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를 하면, 용서를 받는 기쁨을 얻습니다. 이 성탄절 시기에 여러분은 용서라는 선물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동경하는 영원한 본향에서 함께 맞출 행복을 어렵게나마 알 수 있습니다.

베푸는 기쁨 느끼기

훗날 본향에 돌아가 느낄 기쁨 중에서 다른 때보다 이 성탄절

기간에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후하게 베푸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대하신지를 깨달을 때 느낍니다.

성탄절 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친절한 행동을 보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어느 집 현관 앞에 선물을 몰래 놓아 두려고 갔다가 이미 누군가가 놓고 간 선물을 발견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또는 저처럼 어떤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느낌을 받고 가서 보니, 영감을 받은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두 다 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끼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우리의 손길로 채워 주기를 바라신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그러한 뜻을 전하십니다. 그분은 이 기간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민감해져서 구주의 모범과 그분의 종들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성탄절 기간에 우리는 베냐민 왕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베냐민 왕은 우리가 용서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한없이 관대해진다는 사실을 백성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라, 이 시간에도 너희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너희의 죄 사함을 간구하고 있었도다. 그런데 너희의 간구가 헛되도록 그가 버려 두셨느냐? 아니라, 그는 너희에게 그의 영을 부으시고, 너희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너희 입이 막혀 너희로 말할 바를 찾지 못하게 하셨나니, 너희의 기쁨이 그토록 심히 컸느니라.

또 이제 만일 너희를 창조하셨고, 너희가 너희의 생명과 너희가 가진 모든 것과 너희 자신의 전부를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받으리라고 믿으며, 옳은 것으로서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면, 오 그렇다면 너희가 가진 재물에서 서로

나누어 줌이 얼마나 마땅하냐.

그리고 만일 죽지 않으려고 너희의 재물을 나누어 달라고 너희에게 간청을 올리는 자를 너희가 판단하고 그를 정죄한다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너희의 재물을 나누지 않는데 대한 너희의 정죄는 얼마나 더 마땅하겠느냐. 그에게는 너희 생명도 속해 있느니라. 그럼에도 너희는 아무 간청도 드리지 아니하며, 내가 행한 일을 뉘우치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그의 재물이 그와 함께 멸망할 것임이로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세상의 것에 관하여 부유한 자에게 이러한 것을 말하노라.”(모사이야서 4:20~23)

다른 사람에게 베풀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때 느끼는 기쁨을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생에서 그러한 기쁨을 느끼면서 다음 세상에서 누릴 기쁨을 어렵웃이나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다른 사람에게 후하게 베푼다면 말입니다. 구주는 위대한 모범이십니다. 성탄절 기간에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려고 이 지상에 오신 그 관대한 행위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구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로 이끄는 모든 유혹에 저항할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삶을 사셨기에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약속된 흠 없는 어린양이 되시어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요한계시록 13:8 참조) 또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짓는 모든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고 깨끗한 상태가 되어 분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구주께서는 우리가 결코 측량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정작 그분에게는 그 선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용서받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구 주는 위대한 모범이십니다. 성탄절 기간에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려고 이 지상에 오신 그 관대한 행위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성

탄절 기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음을 알렸던
빛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그분에게서 오는 빛까지
기억하게 됩니다. 많은
증인들이 그 빛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주신 선물에 대해 참으로 기쁨과 감사를 느낍니다. 우리가 하늘 본향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그 기쁨과 감사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성탄절 기간에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무한한 관대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을 되새기다 보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영감을 받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도움을 줄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길이 우리에게 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성탄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에 따라 아낌없이 주고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빛으로 축복을 받음

성탄절 시기가 되면 더 쉽게 볼 수 있는 천상의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빛으로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 즉 구주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빛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제3니파이 1장 참조) 동방구와 서방구 양쪽에서 새로 떠오른 별이 보였습니다. 그 별을 길잡이 삼아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를 찾아갔습니다. 심지어 헤롯도 그 표적을 알아차렸는데, 헤롯 왕은 사악했기에 이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세상의 빛이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3일 동안 어두워지지 않고 빛이 계속 비친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리하이의 후손에게 알리시려고 주신 표적이었습니다.

성탄절 기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음을 알렸던 빛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그분에게서 오는 빛까지 기억하게 됩니다. 많은 증인들이 그 빛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 빛을 보았다고 증거했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사도행전 26:13~15)

회복이 시작될 때 소년 조셉 스미스도 뉴욕 주 팔마이라 숲 속에서 놀라운 빛을 보았다고 증거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큰 공포의 순간에,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려와 이윽고 내게 임하였다.

그 빛기둥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나를 결박했던 원수에게서 풀려났음을 깨달았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하셨다.”(조셉 스미스-역사 1:16~17)

우리는 그러한 빛을 하늘 본향에서도 볼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부분적으로나마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그 빛을 은사로 받습니다. (모로나이서 7:1 참조) 그리스도의 빛이 실재하며 소중하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이로운 확신을 주는 이 경전 구절을 읽으면서 자신이 그 빛에 인도되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화를 이루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어둠이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

그리고 …… 내가 너희에게 이르며 또 내가 이를 말함은 너희로 진리를 알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어둠을 쫓아내려 함이니”(교리와 성약 50:23~25)

사악한 영상들과 눈을 속이는 메시지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여러분은 반짝이는 빛과 진리를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일 때 그 빛이 더 밝아진다는 사실을 스스로 배웠습니다. 그 빛이 점점 더 밝아져 대낮이 되면 우리는 빛의 근원이신 분의 면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은 성탄절 시기에 더 쉽게 분별됩니다.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길 바라시는지 알기 위해 기도하고 경전을 읽으며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 받았다고 느낄 때,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울 때(교리와 성약 81:5 참조) 우리는 빛의 근원이신 분에게 나아가고 높이 들리워집니다.

물문경에는 구주의 충실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다시 발산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3니파이 19:24~25 참조) 우리는 빛으로 성탄절 기간을 경축합니다. 구주를 경배하고 그분을 위해 봉사하면 우리와 주변 사람들의 삶에 빛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난 해보다 올해 맞는 성탄절이 더욱 밝게 빛나도록, 그리고 그 빛이 매해 더 찬란하게 빛나도록 자신감 있게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필멸의 생에서 겪는 시련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이신 구주를 따를 때 받는 빛에 더 집중한다면 어둠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영원하는 본향으로 향하는 길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본향으로 돌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삶에 빛을 밝혀 주고 복돋워 주시는 구주와 함께 하는 경험을 이곳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성신의 인도를 구하여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한다. 다음에 제시된 제언을 따를 수 있다.

1. “영원한 사랑에 대한 영원” 부분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 마음속으로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는가?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토론한다.

2. “약속된 기쁨 찾기” 부분에 실린 내용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기쁨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가? 지금, 그리고 일상 생활 속에서 기쁨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토론한다.

3. “배우는 기쁨 느끼기” 부분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구주께서 베푸신 비할 데 없는 은사에 대해 배우게 된다. 다른 사람들도 이 은사를 받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토론한다.

4. 아이어링 회장이 전한 메시지는 구주께서 주시는 빛을 더 잘 받아들이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 나누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종종 성탄절 기간이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분 덕분에 성탄절 기간에 집(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는 점을 간중드립니다. ■

주

1. 제임스 “깁” 캔논, “I’ll Be Home for Christmas”(194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6)

고대의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다고 예언하고, 그분의 많은
역할을 알려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수세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처할 주변 상황에 대해 계시를
받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예언 중
하나가 바로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
구절은 내용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구주께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 그리고
그분에 대해 많은 부분을 알려 줍니다. 이
구절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지상에 온]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구주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계시
받았습니다.(모세서 5:7, 9; 6:52, 57, 59, 62 참조)
그 이후로 거룩한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육신을
입고 지상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실
하나님의 이들에 대해 간증했습니다.(사도행전
10:43; 아골서 4:4 참조)



그리스도의 탄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주의 탄생을 목자에게 알린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누가복음 2:10)을 전했습니다.

니파이는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모습을 보고는 감화되었습니다. 니파이는 이를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두루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니파이전서 11:22)

구주께서는 몸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과 왕은 관복을 입고 직분을 알리는 휘장을 어깨에 달았습니다.(이사야 22:21~22 참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 있는 자”(마태복음 7:29)로서 지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복천년 동안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때 그분은 “다스릴 권한을 가진 [분으로서] 다스리실”(교리와 성약 58:22; 또한 신약개조 제10조 참조) 것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는 단어는 “기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기적적인 탄생과 성역 기간에 베푸실 기적을 나타냅니다. 모사라는 단어는 메시아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해 주실 계명 및 가르침과 관련됩니다. 물문경의 선지자 야곱이 말한 것처럼 “[주님은] 지혜와 공의와 크신 자비로써 그가 지으신 모든 것에 권고하십니다.”(야곱서 4:10)

전능하신 하나님

“현세와 영원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분의 삶은 이 지상이 형성되기도 전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창조주라는 점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메시아이시며, 돌아가신 후 부활하셨고, 구주이자 구속주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Be Not Faithless”, *Tambuli* 1999년 4월호, 4쪽.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와 엘로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또는 이에 더해 ‘바로 하늘과 땅의 영원하신 아버지’(모사야서 16:15 참조)라고 불립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사야 9:6; 니파이후서 19:6 비교)라고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늘 하늘과 땅의 아버지로 불리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창조는 본질적으로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과 땅의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The Father and the Son: A Doctrinal Exposition by the First Presidency and the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Ensign* 2002년 4월호, 13쪽; *Improvement Era*, 1916년 8월호, 934~942쪽.

평강의 왕

“평화에 이르는 길을 헤매고 있는 우리는 멈추어 서서 평강의 왕의 가르침을 명상하고 숙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어쩌면 우리는 그 가르침을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적용하고, 좀 더 높은 법에 따라 살며, 더 차원 높은 길을 걷고, 더 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필요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평화를 찾음”, *리아호나*, 2004년 3월호, 3쪽.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

사랑의 선물



집 주인은 우리가 노래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성탄절 이브에 왜 하필 주인집 앞에서 선물로 노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카스트미어 오코로

아 버지가 운영하시던 출장 뷔페 사업이 기울어서 우리 가족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다. 눈물을 머금은 채 집으로 들어오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고 여쭙었지만 어머니는 끝내 털어 놓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이 하나뿐인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했다. 그때는 그만한 집밖에 구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탄절 기간은 떠들썩하게 지냈다. 음식을 만들고, 옷도 새로 사고, 파티를 열고, 여기저기 구경도 다니고, 무엇보다도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어머니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를 “성탄절 대모”라고 불렀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기 좋아하시는 어머니는 성탄절만 오면 열심히 사랑을 담아 주위 분들에게 나눠 주셨다. 그런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우리도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성품을 키우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해에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집주인에서 세입자로 전락하고 처음으로 성탄절을 맞으면서 어머니는 근심에 쌓이셨다. 다른 사람과 딱히 무엇을 나눠야 할지 생각해 낼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걱정하셨다. 우리는 어머니에게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렸다. 작은 방법으로나마 성탄절의 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여전히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이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버둥거렸다. 집주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우리 가족이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노랫소리에 잠이

깨었다며 싫은 소리를 하는데, 주인이 사는 방 옆에 우리 방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집주인이 불평하는 일이 잦았다. 우리는 노래를 작게 부르며 주인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런 항의에도 우리가 아침 가족 기도를 중단하지 않자 집주인도 조금씩 물러서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 내셨다. 아버지는 집주인에게 성탄절 선물로 캐럴을 불러 줘야겠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다. 모두 다 그 제안에 기뻐했지만 나는 아니었다. 나는 강하게 반대하며 우리가 가족 기도를 한다고 집주인이 불평했던 일을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노래는 적어도 고마움을 알 만한 사람을 위해 불러야 하는데, 그녀는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도 뜻을 굽히지 않으셨다. 캐럴을 부르면 종교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친구라는 뜻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하셨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녀를 위해 부를 캐럴을 정하고 연습하는 일에 동참했다.

성탄절 이브에 주인집 현관에 서서 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주인은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나는 화가 나려 했고, 그 동안 헛수고를 했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런데 가족들은 모두 함박웃음을 짓고 있었다. 이 활동이 정말로 즐거운 모양이었다. 나도 그런 기쁨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마음속에서 생겼다.

마침내 문을 연 집주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잠시 서 있었다. 아버지는 노래를 불러 주고 싶다고 조용히 말씀하시고는 괜찮다면 잠깐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물으셨다. 그녀는 옆으로 비켜섰고, 우리는 집안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 노래는 모두 불렀다. 미리 연습한 노래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노래도 있었다. 그러자 방 안에는 놀라운 기운이 퍼져 나갔다. 가사가 전달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노래를 부르는 우리를 보며 그녀는 빙긋이 웃고 있었다. 한동안 외로웠는데 우리를 보자 가족이 그리워진다는 말도 했다. 우리는 그 집을 나오기 전에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고 행복한 새해를 맞으라고 말해 주었다. 그녀에게서 고맙다는 말을 들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그 일을 생각해 보았다. 진정한



성탄절 선물은 꼭 가게에서 사거나 집에서 만든 선물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자 하는 소망과 태도였다. 성탄절에 가장 큰 선물을 전하는 데에는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담긴 선물이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외로운 이웃에게 작은 봉사를 하며 성탄절의 영을 느꼈다. ■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동방박사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웬디 케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묘사한 조각물을 자세히 보면서, 화려하게 옷을 차려 입고 선물을 아기 예수에게 전하는 세 사람에게 대해 궁금해 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 세 명이 동방박사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찾아가고, 진귀한 선물을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경전 구절을 찾아보면 박사들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 참조) 하지만 박사들의 방문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여러 세기 동안 동방박사의 배경과 아기 그리스도를 방문한 목적을 놓고 그 실마리를 풀고자 노력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로 더 자세한 정보를 일부분 알아내기는 했지만, 기독교계에서 오랫동안 믿어 왔던 많은 내용은 역사보다는 신화와 추측에 근거를 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알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사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아기 그리스도를 방문한 박사는 세 명입니다. 이 믿음은 선물이 세 가지였다는 점에서, 즉 세 명이 각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하나씩 가져왔다고 믿기 때문에 생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는 더 많은 박사들이 있었으며 어찌면 열두 명이었을 거라고 믿기도 합니다.¹ 성경 사전(Bible Dictionary)에는 박사들이 본래 구주 탄생의 목격자 역할을 했기에 적어도 두세 명은 되었을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9:15; 고린도후서 13:1; 교리와 성약 6:28 참조)²

박사들이 왕이었다는 믿음은 왕들이 주님을 방문하리라고 예언된 구약전서의 구절에서 기인했습니다. 이사야 49장 7절에는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라고 나와 있고, 이사야 60장 10절에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72:10 참조)

학자들은 다른 사료들에서 박사들을 왕이라고 지칭한 기록도 찾아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13세기에 남긴 기록에는 페르시아 사바 왕국에서 나온 한 이야기가 있는데, 세 명의 왕이 황금과 유향, 몰약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 새로 태어난 선지자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마르코 폴로가 쓴 그 기록에 따르면 그들의



“세 명의 왕들”

이름은 가스파르, 멜키오르, 발타자르입니다. 오늘날 박사들하면 보통 이들의 이름을 말합니다.³

박사라는 명칭의 기원

흠정역에 나오는 박사라는 용어는 그리스어인 *magos*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magos*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mag*라고 보통 표기하는데, 실제로는 페르시아어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고대 종교에서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단어가 사용된 용도를 보고 일부 학자들은 박사들이 페르시아 종교의 제사장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셨던 브루스 알 맥쿱키(1915~1985) 장로님은 자신의 저서 신약 교리 주해서[*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들이 고대 메디아나 페르시아에 있던 배도한 종교 단체의 제사장이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잘못된 의견입니다. 그보다는

참된 선지자, 즉 시므온과 안나, 또는 목자들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약속된 메시아가 사람들 사이에 태어났다는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⁴

동방에서 왔을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We Three Kings of Orient Are]⁵이라는 성탄절 노래처럼 박사들은 동방에서 왔을까요? 작사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쪽(east: 영문 흠정역에서는 동방을 나타내는 “Oriē”가 아닌 동쪽을 나타내는 “east”가 사용되지만 개역 개정판에는 “동방”이라는 단어가 쓰임-역자 주)이라는 일반적인 단어 대신에 동방(Oriē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동쪽에 있는 지역은 다소 이국적인 분위기가 풍겨 동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가 일반적인 지명 용어인 “동쪽(east)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 누구도 박사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⁶

몇몇 학자들은 시편 72편 10절을 근거로 박사들이 오늘날의 스페인과 에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다른 학자들은 박사들이 페르시아(오늘날의 이란)에서 온 유대인이라 추정하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이 그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다는 정황을 근거로 듭니다.⁷

박사들은 언제 예수를 방문했을까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묘사한 미술 작품에는 박사들이 구주가 탄생한 직후에 방문한 것처럼 **갓난아기**를 예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전을 살펴보면 박사들은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마구간에 같이 있지 않았으며, 또한 예수님이 유아일 때에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박사들은 어린 아이였던 예수님을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을 당시 방문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영문 흠정역에는 young chil과 나와 있어 어린아이를 나타냄-역자 주)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옆드려 아기에 경배하고 ……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마태복음 2:11).

박사들이 드린 선물

박사들은 왜 그런 진귀한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학자들은 대부분 선물에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몰약은 예수님이 겪게 될 고통과 사망을 상징합니다. 몰약은 시체를 매장하기 전에 발랐던 약품입니다.⁸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을 받아

헤롯은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지시한 후 이렇게 명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마태복음 2:8) 하지만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마태복음 2:12) 헤롯은 이에 격노했는데, 박사들이 자신의 명령을 무시해서 그렇기도 했지만 장차 이 국가를 통치할 아이가 베들레헴에 분명 살고 있다는 사실에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심부름을 하며

성경 사전에는 박사들에 대해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의로운 사람들이었다. …… 박사들은 팔레스타인 동편 어딘가에 살고 있던, 주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그들은 영의 인도를 받아 여행을 한 후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고는 본국 사람들에게

돌아가 임마누엘 왕이 육신으로 이 지상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증거했다.” ■

주

1. 존 에이 티벳트네스, “What Do We Know about the Wise Men?”, *Insights: An Ancient Window* (newsletter of the Foundation for Ancient Research and Mormon Studies [FARMS]), 1998년 12월호 참조.
2. 성경 사전, “Magi”, 728쪽 참조.
3. 존 에이 티벳트네스, “I Have a Question”, *Ensign*, 1981년 10월호, 25~26쪽 참조.
4. 브루스 알 맥콩키,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전3권(1966~1971), 제1권, 103쪽.
5. 존 헨리 홉킨스 2세, “We Three Kings of Orient Are”(185년).
6. 레이몬드 이 브라운, *The Birth of the Messiah*(197년), 168쪽 참조.
7. 존 에이 티벳트네스, *Ensign* 198년 10월호, 25쪽 참조.
8. 존 에이 티벳트네스, *Ensign* 198년 10월호, 25쪽 참조.
9. 성경 사전, “Magi”, 727~728쪽.



마음의 선물

“예수님을 찾게 되면 우리도 옛날에 박사들이 선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많은 보배들 중에서 선물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의 보배함을 열어서 우리 자신을 바치기를 바라십니다. ‘보라, 주는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나니’(교리와 성약 64:34).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예수님을 구하여 찾음”, *성도의 빛*, 199년 6월호, 5쪽.

자매들이 전해준

사랑

“저희는 괜찮아요.” 그렇게 방문 교사들을
안심시키긴 했지만, 그해 성탄절, 자매들의
봉사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마리나 페트로바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11월에 남편과 나는 정규 직장이 없었다. 줄어든 내 수입으로 겨우 집세와 전기세, 전화세를 내고, 남편의 적은 월급으로 차 할부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으로는 식구들이 근근이 생활이나 이어 나갈 정도였다. 12월에는 일이 늘어 정상 생활로 돌아올 터였지만 그것도 1월쯤에나 돈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탄절의 근사한 저녁식사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래도 “다 잘 될 거야.” 하며 나 자신을 다독였다. 그 해 여름에 남편이 산딸기를 많이 따서 그걸로 잼을 만들어 두었으니, 팬케이크와 잼을 선물로 준비하려고 했다.

하지만 딸 아이 셋(6, 8, 14세)이서 자기들이 만든 화환으로 즐겁게 장식을 하며 엄마 아빠에게 받을 성탄절 선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자 가슴이 미어졌다.

하루는 가정 방문 교사들이 연락도 없이 저녁에 불쑥 집을 찾아왔다. 나는 형제, 자매가 없어서 지부의

상호부조회 자매들, 특히 가정 방문 교사들과 정말로

친자매 같이 지냈다. 그날 밤 방문 교사들은 흥미로운 공과를 나누고는 곧 다가오는 성탄절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걱정할 것 없으며 그들을 안심시켰지만 조금은 “궁핍한” 성탄절이 될 것 같다고 털어 놓았다. 방문 교사들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하겠다고 말하며 나를 위로했다.

하루는 퇴근길에 남편이 마중을 나와서는 집에서 모두 안달이 나서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지부의 한 자매님이 상자 몇 개를 놓고 간 것이다. 상자를 열어보니 갖가지 성탄절 음식이 가득했다. 과일이며 쿠키, 사탕에 식료품과 장식품, 거기에 멋지게 포장된 선물까지, 없는 게 없었다. 너무 고마워서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것만이 아니었다. 성탄절 아침에는 가정 방문 교사 중 한 가족이 선물을 가득 담은 상자로 우리 가족을 놀라게 했다.

결국 “궁핍한” 우리의 성탄절은 어느 때보다도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었다. 우리 집은 성탄절의 영은 물론이고, 가정 방문 교사와 지부 회원들의 사랑과 온기로 가득 찼다. 주님은 역시 다른 사람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를 돌보도록 그분께서 지명하시고 영감을 주시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다. ■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나 대개 다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을 제공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랑을 위해 봉사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합니다.”
소문서 니콜라 타넬(1925-1985) 회장 “봉헌한 삶, 성도의 보람” 6월호 3쪽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스테이크 회장이라는 부름은 성스럽고 영적인 경험입니다. 제일회장단의 지시 하에 총관리 역원과 지역 칠십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맡습니다.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한 지난 16년 동안 저도 북미와 남미, 유럽과 아시아 등 여러 문화권과 대륙을 넘나들며 스테이크 회장들에게 부름을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총관리 역원이 되어 처음 몇 주 동안 받았던 가르침 두 가지를 소중하게 생각해 봅니다. 먼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신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님은 “성역을 베푸는 동안 회장 건너편에 계신 주님께 질문을 하면 곧바로 답변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이 받는

제가 만나 본 스테이크 회장님들은 수백 명이 넘습니다. 모두 진취적이며 성실한 분들이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신앙으로 푹푹 뭉쳐 결코 꺾이지 않는 소망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스테이크 회장 부름을 주는 일은 항상 같으면서도 언제나 다릅니다. 지역을 방문한 총관리 역원 또는 지역 칠십인 두 명이 전적으로 주님께만 의지하며, 부름을 주기 전에 같은 영감을 받는다는 점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스테이크 회장을 선별하는 과정에는 언제나 주님의 강한 영이 함께 하며, 그 영이 우리의 결정을 확인해 줍니다. 한편, 스테이크마다 부름을 받는 사람이 제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이 일은 항상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부름 받은 스테이크 회장은 경험이 풍부하고 다년간 봉사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젊고 신앙으로 충만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직업에 어떤 특정 유형은 없습니다.

열쇠 부여

주로 현재 스테이크에서 지도자로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스테이크 회장이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부름을 준 후에야 우리는 그 형제님이 집에서 우리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스테이크 회장단 교체 발표가 있기 전에 그 형제님과 아내는 한밤중에

우 리는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 머리에 손을 얹고 스테이크의 제반사를 감리하고 관할하는 데 필요한 열쇠를 부여합니다.



영적인 은사

부름을 받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한번은 밤이 다 되도록 접견을 하고도 딱 이 사람이라고 영의 확신이 드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명단에 있는 모든 이들과 접견이 끝나자, 이번에는 현재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존경을 받는 형제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 우리가 한 복음 교리 교사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이 그분께서

잠에서 깬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름이 오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 직분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겸손한 사람들이고 몇몇은 부름을 받을 당시에 커다란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회원이 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던 유럽의 한 회원은 부름을 받아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도 옆에 그분의 훌륭한 아내가 있었는데, 두 팔로 그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해낼 수 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녀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 형제님은 정말로 훌륭하게 봉사했습니다.

매우 젊은 지도자들과 더불어 급성장하는 교회를 보아 왔던 필리핀의 한 형제님은 부름을 받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너무 늙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시는 몇 분은 그 형제님보다 30세 이상 연세가 많다고 말씀드리자 그분은 부름을 받아들이고 참으로 훌륭하게 봉사했습니다.

구주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요한복음 15: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구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부름을 받기 전이나 수행할 때나 아니면 해임 후라도 주님은 부름받은 사람에게 그 부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한 젊은 스테이크 회장은 그 확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접견할 당시에 저는 32세였는데, 약 4년째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접견을 하시던 분 중 한 분이 날카로운 질문을 두 가지 하셨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간증을 얻었는지와 두 번째로는 구주에 대한 간증을 나눠 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알게 된 회복된 복음의 진실성, 즉 물몬경이 참되다는 사실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주에 대해 간증을 나누자 저는 제가 다음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을 받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차를 몰고 집에 도착해서는 아내에게 그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다음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 받을 것 같다고 말하자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지만 부름 받을 정도는 아니에요.’ 두 시간쯤 지난 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스테이크 대회 일반 총회에서 지지를 묻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 머리에 손을 얹고 스테이크의 제반사를 감리하고 관할하는 데 필요한 열쇠를 부여합니다. 스테이크를 감리하는 데 필요한 열쇠들은 이 지상에서 모든 열쇠를 소유한 교회 회장과 열네 명의 다른 사도들의 위임 하에 전해집니다. 이 열쇠에 영적 권세와 권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열쇠를 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태복음 16:19) 이러한 열쇠 중 일부는 지역 지도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제이라헤물라에서 엘마는 “하나님의 반차를 좇아 그의 손으로 안수함으로써, 교회를 감리하고 감독할 제사와 장로를 성임”(엘마서 6:1)했습니다.

외형으로 드러나는 열쇠의 힘

성전 추천서를 받으려면 교회 회장의 서명을 받아야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권한은 스테이크 회장에게 위임된 열쇠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은 보좌들과 함께 감독을 제일회장단에게 추천하고, 승인을 받으면 감독을 성임합니다. 맹기세택 신권에 성임될 사람들을 승인하며, 전임 선교사를 추천하고 성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판사 역할을 하며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완전하게 회개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 내 감독들과 지부 회장들이 일을 잘 해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인도합니다.

스테이크 회장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시를 부여 주십니다. 미국 남부 지역에 사는 한 스테이크 회장님은 다음 일화를 들려 주었습니다.

“2007년 10월에 한 자매님이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는 접견이 끝나면 남편도 성전 추천서 접견을 할 것인지 자매님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남편이 성전에 가지 않은 지 20년이 넘었고,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지만 성전에서 인봉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형제님을 지금 당장 방문해야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느낌이 너무나 강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스테이크 회장실을 나오자마자 건물 저쪽에 서 있던 그 형제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접견을 하려고 형제님을 제 집무실로 모시고 왔습니다. 접견이 끝나고 감독님도 함께 한 자리에서 드디어 형제님은 성전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에게서 가슴 벅찬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자매님에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 주가 지나고 저는 그 부부로부터 성전에서 인봉을 받으니 참석해 달라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이 부부가 인봉받고 넉 달이 지난 2008년 초였습니다. 형제님은 출근 준비를 위해 아침에 일어나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영의 속삭임을 듣고 그 형제님이 이 세상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을 하도록 독려했다는 사실에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스 테이크 회장은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될 이들을
승인하고 성전 추천서를
받으려는 회원들을
접견하며 이스라엘의
관사로 봉사합니다.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약속

주님께서는 스테이크가 “폭풍우를 …… 피할 방어진이 되며 피난처가”(교리와 성약 115:6)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테이크 회장은 주님의 목자로서 교회 내에서 안전하다는 느낌과 영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회를 살피야 합니다. 또한 교리가 참되고 순수하게 전달되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든 비 헝클리(1910~2008)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론 신권 교사의 임무가 스테이크 회장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는 [전체 스테이크]를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힘을 북돋아 주며

교회 안에 악행이 없도록,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일이 없도록, 거짓말하는 일, 험담하는 일이나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보살피며,

교회 회원이 자주 함께 모이도록 보살피며, 또한 모든 회원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도록 보살피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20:53~55).

스테이크 회장은 가족을 강화하고, 자라나는 세대를 강화하며,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 스테이크 회장은
주님의
목자로서 교회

내에서 안전하다는 느낌과
영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회를 살피야
합니다.



성결한 침례의 물가로 나오도록
권유하고, 교회에서 떠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살아
있는 회원들과 우리 앞에 가신
분들이 성전 의식을 받도록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스테이크 회장이 이 모든 중요한
책임을 수행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은사를 강화해 주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교리와 성약 46편에서 주님은
여러 영적 은사에 대해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무릇 모두가 다 모든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많은 은사가 있고 또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가지 은사가
주어짐이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주어지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다른 것이 주어지나니, 이는 모두가
그로써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46:11~12)

그리고 주님은 다음과 같이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고 성임하여 교회를 보살피게
…… 할 자들에게는 그 모든 은사를 분별함이
주어지리니 …… 머리된 자가 있게 하여, 이로
말미암아 모든 회원이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46:27, 29)

때로는 이런 영적 은사들은 주님께서 성취하실
영적인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전에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셨던 한 형제님은 다음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혼자서 청소년 네 명을 키우던 충실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저는 자매님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자녀들이 세미나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나요? ‘여러 다른 어려움도 있고 저희 집은
예배당에서도 멀어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하고
자매님이 대답했습니다. 순간, 저는 권고와 함께
약속을 해야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돈이 없으시다면
아이들과 함께 걸으셔야 합니다. 자녀들과 같이
오십시오. 그리고 반에 참석해서 함께 앉아
계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구원받고, 모두

성전에서 결혼할 것입니다.’ 제가 말해 놓고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지만, 강력했던 영감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권고를 받아들인 자매님은 여러 해 동안 자녀들과 함께 걸어서 세미나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자녀가 성전에서 결혼했고, 한 아들은 와드에서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스테인크 회장이 받는 가장 큰 은사는 그가 섬기는 사람들을 향한 깊고 넓은 사랑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받았을 때 저는 스테이크 회원들을 향해 깊은 관심과 큰 사랑을 느끼던 제 자신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심각한 범법을 저질렀던 회원도 같은 입장에서 공감하고, 도와주고 싶은 큰 소망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느끼면 회원들이 진정으로 구주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개종하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어김없이 생깁니다. 여러 해 동안 보좌로 봉사하기는 했지만 회장단의 열쇠를 받게 되자 그 느낌은 더 강해졌으며,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몰몬이 말했던 자애라는 은사를 부분적으로나마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몰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모로나이서 7:48)

스테인크 회장은 이러한 느낌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미에서 봉사하던 한 스테이크 회장님은 이러한 사랑의 느낌으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선교사 동반자로 함께 봉사했던 형제를 찾아야 한다는 강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형제는 결혼한 상태였고 교회에서는 저활동 회원이었습니다. 형제의 회원 기록은 스테이크 센터에서 150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단위 조직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지부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친구가 외곽에 있는 아주 먼 곳에 산다고 했습니다. 지부 회장님은 그 작은 마을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알려 주셨습니다. 얼마쯤 가자 아스팔트 도로가 끊기고 비포장 도로가 나왔습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더 가고 나서 저는 길을 잃은 걸 깨달았습니다. 차를 세우고 이제 포기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차에는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도로에 먼지가 뿌연게 일어서 아내와 아이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도로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제

옛날 선교사 동반자를 찾았고, 그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형제는 교회에서 다시 활동적인 회원이 되어 여러 지도자 직분에서 봉사했습니다. 아들은 명예롭게 선교 사업을 했고, 이제 제 친구는 감독단에서 보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스테이크 회장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은 에콰도르에 있는 스테이크 회장이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스테인크의 한 형제를 지켜보았는데,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그 형제를 만나야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형제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와 말 한 마디도 나눠 보지 못해서 무척 슬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매우 완고한 아버지는 부자관계마저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집 앞에 차를 세우고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죠?”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형제님의 스테이크 회장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문을 열었고, 저와 제 옆에 서 있던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없이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전 세계에는 2천 800여 명의 스테이크 회장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들은 평범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자신의 승영을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이 얹히고, 신권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제가 만나본 스테이크 회장님들은 수백 명이 넘습니다. 모두 개인적인 삶이나 사회 생활에서 진취적이며 성실한 분들이었습니다. 신앙으로 푹푹 뭉쳐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결코 꺾이지 않는 소망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들의 집에도 머물렀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해 보았으며, 하나님께 청하는 진실된 간구도 들었습니다. 그들 위에 임하는 주님의 권능도 직접 느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며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스테이크 회장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 옆에 함께 서서 도읍시다. 그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신뢰합시다. “이스라엘은 나의 정한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이요, 내가 준 열쇠로 인도되어 다시는 전혀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35:25) ■

주

1. 고든 비 헝클리, “스테인크 회장”, *리아호나*, 200년 7월호, 61쪽.



할렐루야!

세상 빛이 되시고
(찬송가, 133장 참조)

애정 어린 봉사로 보살피십시오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성구와 인용문, 원리를 가르친다. 교리에 대해 간증을 전한다.

방문을 받은 자매들이 배우고 느낀 것을 함께 나누도록 권유한다.

다른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

모로나이사서 7:48:“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모든 시대를 통틀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숫자도 우리의 행복에 기여하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수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며 낙담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좌절을 발견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조용한 기도를 느껴 보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주님의 손 안에 든 도구가 됩시다.”(“행복, 여러분의 유산”,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19, 120쪽)

바바라 톰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맡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최고의 성품’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선언했듯이 ‘여러분이 받은 특권에 따라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천사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는 데 제약이 없을 것입니다.’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우리가 맺은 성약에 충실합시다. [모사이아서 18:8~10 참조]”(“이제 함께 기뻐합시다”,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16쪽)

어떻게 하면 애정 어린 봉사로 보살필 수 있을까요?

교리와 성약 81:5:“약한 자를 도우라.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선한 목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15) 그래서 여성들은 구주께서 하신 방법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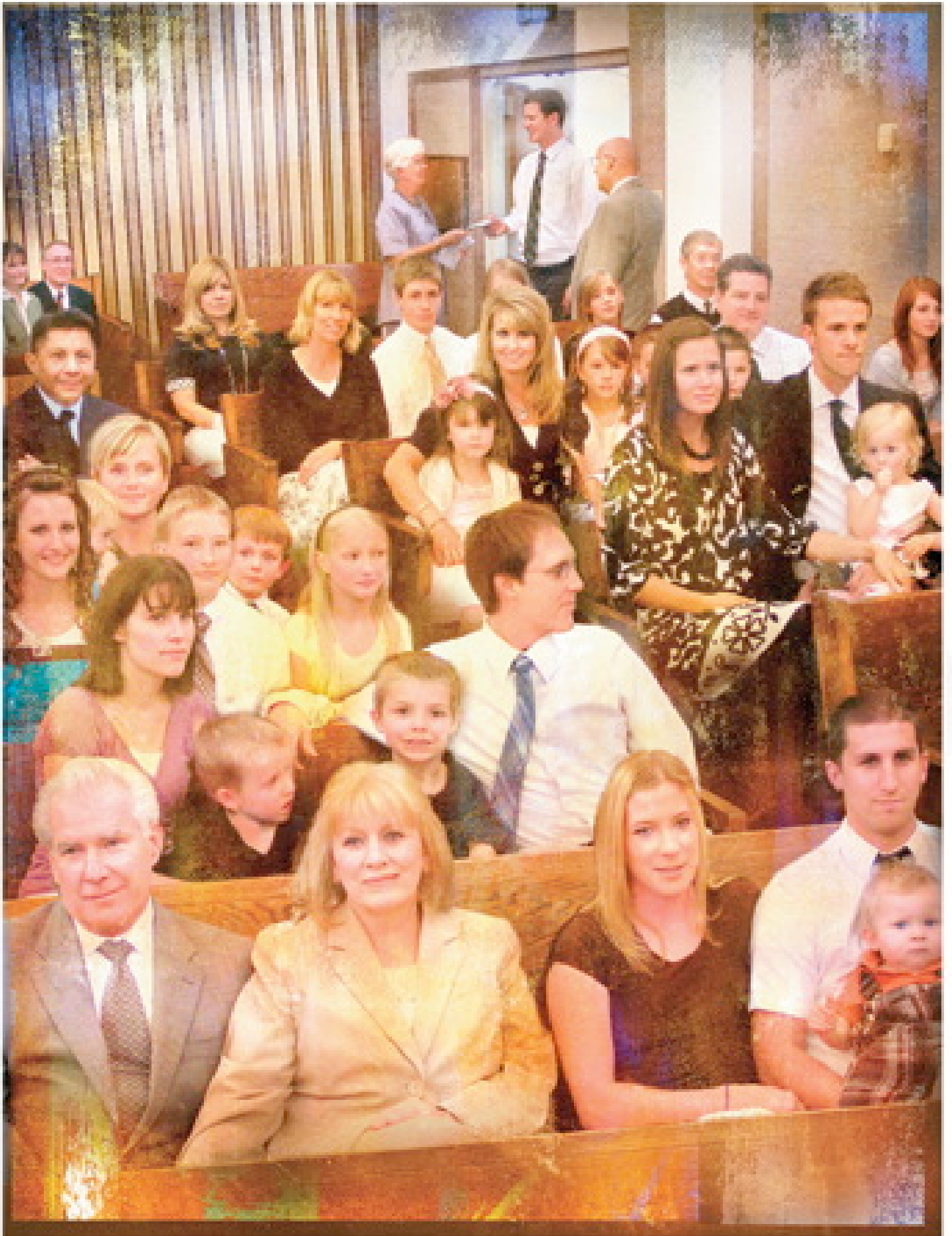
사랑하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와 주며, 필요한 물건을 나눕니다. 신성한 은사로 양육하고, 젊은이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며,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 줍니다.

“구주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며, 나의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따라서 그분의 충실한 딸이자 제자인 여성은 진실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그 하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곧 나의 일이며, 나의 영광이니라.’”

다른 사람이 해의 왕국의 잠재성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은 여성의 신성한 사명 중 한 부분입니다. 어머니이자 교사로서, 또한 성도로서 다른 이를 양육하면서 여성은 살아 있는 점토를 다듬어 자신이 소망하는 형태로 빚어냅니다. 하나님과 협력하여 영이 살고 영혼이 고양되도록 돕는 것이 여성이 성취해야 하는 신성한 사명이며 여성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고상하고, 고양시키며, 승영하게 하는 것입니다.”(Woman Of Infinite Worth”, Ensign, 1989년 11월호, 22쪽)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주님은 사랑, 동정심, 친절, 자애라는 신성한 성품으로 여성을 축복하셨습니다. 방문 교사로서 우리는 매달 방문을 하며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동정심과 자애라는 은사를 선물하여 자매들을 축복할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기꺼이 방문 교육을 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돕고 강화시키는 사랑과 동정을 베풀겠다는 더 큰 다짐을 하기를 간구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13, 115쪽) ■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

로버트 시 옥스 장로
2000~2009년 사이 칠십인으로 봉사

데 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님은 경건이라는 주제를 명확한 관점에서 제시하셨습니다. “경건이란 사랑과 어우러진 존경심의 심오한 표현이다.”¹ 이러한 관점은 *어린이 노래책*에 실린 가사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경건은 조용히 앉아서
맘에 하나님 생각하는 것
주 축복을 생각할 때 오는 느낌
경건은 사랑이지요²*

경건과 관련하여 경전에 나오는 핵심 단어는 바로 **존중, 사랑, 존중, 경외**입니다. 이 단어를 기준으로 하면 경건이란 단지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은 예배에서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몸을 움직여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예배는 늘 특별한 마음가짐이 수반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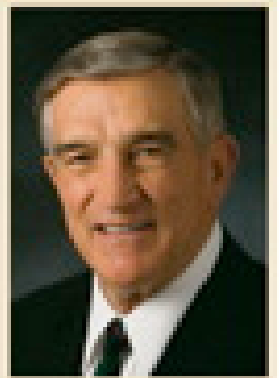
예배를 드리는 태도로 헌신, 숭배, 경외라는 깊은 감정이 생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영을 이끌어 주는 헌신의 형태로서 사랑과

경건을 하나로 묶어줍니다.”³

물론 예배당에 들어가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그분의 속죄가 현세와 영원토록 우리 삶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력에 대해 고마움을 느낄 때, 우리는 저절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경외하는 감정을 느낍니다. 이러한 감정은 복음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봉사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경건이 없다면 존중, 사랑, 경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경건한 태도를 키워 나간다면 우리 삶은 그분께서 보이신 완전한 모범을 더욱 더 닮아갑니다. 그러한 경건함에 이르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신앙을 갖고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복음 표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경외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아니하며, 그분을 격하시키거나 업신여기는 농담을 일삼는 일에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자



경건은 떠들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진실된 경건은 경청하고, 하나님에 관한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경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구주로 경배하는 그분의 아들을
찬양하며 경외합니다.

레위기 19장 30절에서



경 건에서 중요한 점은 마음에서
느끼는 감정,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존중,
사랑, 경외심입니다.

참조) 이런 축복이야말로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보통 교회에서 경건에 대해
말할 때 예배 장소에서 조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조용히 있는 것도 경건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개념을 더
폭넓게 살펴보면 경건에는
소리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용한 것이 반드시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경건과 관련하여 기대하시는 바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느끼는 주님에 대한 경건함은
주님의 성전과 예배당을 존중하는 우리의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이는 태도와 품위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경외하는지를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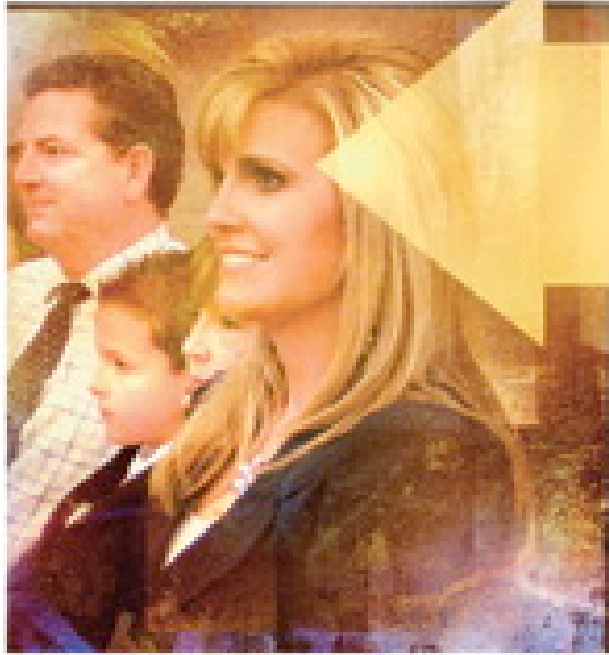
경건이 가져오는 축복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1836년에 커틀랜드 성전을
헌납하면서 드렸던 기도문에서 경건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조셉은 회개하는 자가 돌아와서 “당신의
집에서 당신을 경외할 자 위에 부어주시기로 당신께서 정하신
여러 축복을 다시 누리게 하시옵소서.”(교리와 성약
109:2)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선지자가 드린 기도를 보면
경건이 가져오는 축복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지혜의 말씀과 성신의 충만함,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용서입니다.(14, 15, 21, 22, 34절

예배당은 가장 첫째 되고 으뜸가는 예배의 집으로서 전주
음악을 들으면서 조용히 앉아 회복된 복음의 훌륭한에 대해
명상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식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함과 구주의 놀라운
속죄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성스럽고
중대한 문제를 숙고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경건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잘 준비된 예배는 신앙을 강화하는 토대이자 간증과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성찬식 시작 전에 자리에 앉아서 전주 음악을 듣던 어느
안식일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생활 속에서
일어난 특정 문제에 대해 영적인 가르침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응답은 그날 전주 음악을 통해 왔습니다. 영은 그
감미로운 선율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전주 음악이 끝나기도 전에 제
옆에 앉아 있던 분이 저에게 기대면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영은 곧 떠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보배 같은 그 감미로운
계시의 흐름은 경건성이 사라지면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저는 잔잔한 전주 음악이 흐르는 신성한 시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러한 진리를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에 있는 민감한 계시의 통로를 차단시키는 불경은 적이 추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⁴



경 건한 시간에 경건한 장소에서 하나님에 관한 일에 대해 생각하도록 정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경건하기 위한 방법

경건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관심을 쏟기보다 경건한 시간에 경건한 장소에서 하나님에 관한 일, 속죄의 위대함이나 영원한 가족, 충만한 시대에 회복된 복음 등에 대해 생각하도록 정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태도가 행동에서 우리나라도 단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지나치게 유행에 맞춘 가벼운 복장은 피하며, 교회 건물에서 크게 말하거나 남을 방해하는 행위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당에서는 한층 더 “조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성찬 의식이 진행될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모임 도중에 일찍 떠나야 한다면 경건하게 행동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대비하여 출구 근처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나갈 수 있게 준비합니다. 모임 중, 특히 말씀이나 발표 시간 중에 자리를 떠나면 연사나 여러분 주위에 앉은 사람의 주의를 흐트러뜨립니다. 다른 사람과 주님을 존중한다면 모임 도중에 자리를 뜨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모임의 경건성이 어린이들의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특별히 경건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첫 번째 규칙은 어린이도 함께 참석하도록 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모임에 데리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교회에 가져오는 도구들, 즉 장난감이나 음식과 같은 도구는 최소한만 가져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후기 성도들은 큰 축복을 받아 교회 모임에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진실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예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상 활동이나 생각에서 그분들에 대한 경건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예배 활동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경외하는 감정을 키우고 강화하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감정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하는 성품입니다. ■

주

1. 데이비드 오 맥케이, Conference Report, 1967년 4월, 86쪽.
2. “경건은 사랑이지요”, *어린이 노래책*, 31쪽.
3. 맬린 에이치 옥스, *Pure in Heart*(1999년), 125쪽.
4. 보이드 케이 패커, “Reverence Invites Revelation”, *Ensign* 1999년 11월호, 22쪽.

왜 나야?

엘리자베스 퀴글리

하 필이면 왜 나야? 왜 지금이지?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주요 승마 대회를 막 마친 상태였다. 장애물 경주마를 타는 기수로서 내 능력은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나는 학교 생활과 피아노 수업, 꿀벌반 활동으로 바빴다. 배운 대로 모든 것을 해 나갔고, 삶 그 자체로는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변해 버렸다.

시련

이제 나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 너무 아파서 눈을 못 뜰 지경이다. 진단받은 병명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다. 암마가 비슷한 암으로 돌아가신 지 4년 만에 나도 같은 병에 걸렸다. 암을 제거하기 위해 힘겨운 화학 요법 치료를 견뎌내야 했다. 암을 확실히 제거하려면 2년 반 동안 화학 요법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의사는 말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것도 하필 지금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암 말고도 헤쳐나가야 할 문제가 또 있었다.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 중에는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엄청난 양이 내 몸에 투여되었다. 백혈병 세포를 죽이는 데에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지만 청소년 시기의 여성에게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관절 근처의 뼈들이 괴사하는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약간 있었다. 담당 의사는 내가 열두 살이어서 그런 병에 걸리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화학 요법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스테로이드는 주요 관절 대부분과 척추 부분을 손상시켰다. 고통이 계속되었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나서 넉 달 후에 나는 스테로이드 약 때문에 괴사된 부위를 치료하고 통증을 완화할


목적으로 엉덩이 부위에 첫 수술을 받았다. 바람과는 달리 수술 결과는 좋지 않았고 정형 외과 의사는 이제 말을 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내가 꿈꾸던 미래는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나는 모범생이었고 학교 생활도 정말로 재미있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도 가지 못했다. 화학 요법으로 면역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대신 새엄마와 함께 집에서만 생활했다. 정말 참담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아니었다.

엉덩이에 수술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 첫 번째 수술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걸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휠체어를 타야 했다. 다시는 말을 타지 못하리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견지도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병든 채 살아가는 것, 그것도 휠체어에 갇혀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

기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다. 물론 여러 다른 사람들도 나를 위해 기도했다. 이런 시련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병에서 완치되고 관절이 모두 회복되어 남은 화학 요법 치료를 계속 하지 않아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렸다. 하지만 매주 화학 요법 치료를 받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어린이 의료 센터(Primary Children's Medical Center)에 가야 했기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고 느꼈다. 몸은 계속 아팠고, 여전히 휠체어에 갇혀 지냈다.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가엽고 몸이 아픈 아이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믿다니, 엄마 아빠는 제



그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역경을 통해 배웠다.

정신이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몇 년 전, 엄마가 회복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에도 비슷한 신앙의 시련을 겪은 적이 있다. 엄마는 언제나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셨고 몹시 쇠약하여 집안에서 거동하는 것도 무리이었다. 기적이 일어나서 엄마가 낮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엄마가 돌아가시고서야 깨달았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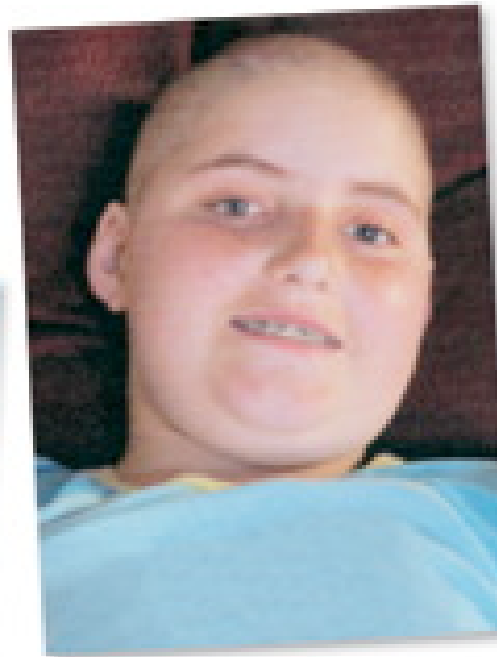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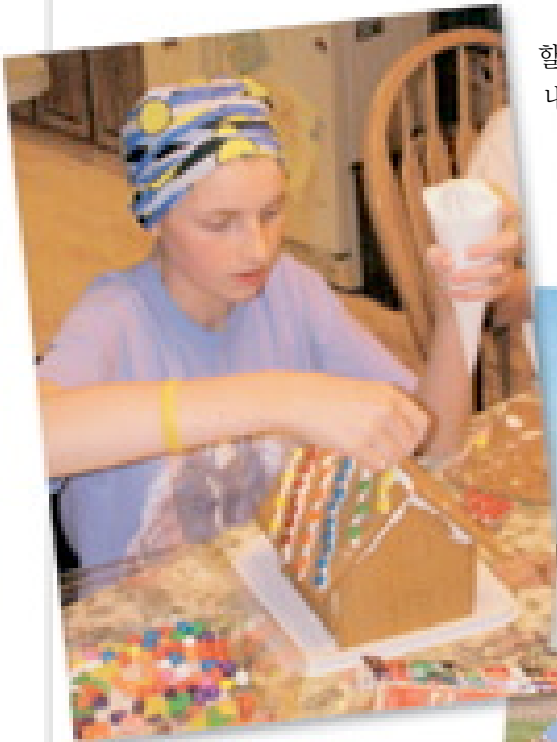
이렇게 깨달은 교훈을 떠올리며 나는 기도 드리는 방식을 바꿨다. “제발 제 병을 고쳐주세요.”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련에서 정말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화학 요법 치료를 더 잘 견딜 수 있었고 시련을 대하는 내 태도도 나아졌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드렸던 기도와 질문에 대해 쏟아지는 축복과 응답의 시작에 불과했다.

아빠와
할아버지께서는
내게 여러 번 신권

축복을 해 주셨다. 수술을 받아야 할 때면 언제나 부탁드렸다. 축복은 나와 가족들이 수술에 대해 침착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한번은 고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집을 나서기 전에 아빠와 이웃 분이 축복을 해 주셨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차를 댈 즈음 열이 내려서 그날 밤을 병원에서 보낼 필요가 없었다. 신권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다.

교훈

백혈병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날을 평생토록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청녀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이 내 물건을 지하실에서 1층에 있는 방으로 옮겨 놓으셨다. 내가 부모님과 더 가까워서 지내고 계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신경을 써주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병석에 있는 동안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방을 청소하고 꾸며 주셨다. 이것 말고도 여러 사람이 우리 가족을 위해 봉사해 주셨다. 처음에 나는 그런 봉사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혼자서는





올해 3월 본부 청년 모임에서 오보예를 연주하는 엘리자베스
(본 모임은 www.generalconference.lds.org 시청 가능)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구나 하며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곧 도움을 청하는 일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분이 나아지자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봉사할 기회가 있는지 더 많이 찾아보기 시작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봉사하려고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면 좋은 느낌을 받는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그들도 좋은 느낌을 받는다는 점을 깨달았다.

죽음의 문턱에 발을 디더렸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하는 선택과 미래에 대해 나는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학교에 있다 보면 “일진이 나빴다(bad hair day.)”라고 불평하는 친구들이 많다. 가발을 쓰고 진분홍색 휠체어를 타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너희들은 적어도 머리카락은 있잖아!”(bad hair day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쓰는 관용적 표현으로 저자는 이에 따라 머리카락을 나타내는 hai를 써서 표현했음-역자 주) 굵이 높은 신을 신고 걷다가 다리가 아프다고 투정하는 말을 들을 때에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희는 걸을 수는 있잖아.” 이제 이전과는 달리



폭풍우가 몰아칠 때 임하는 인도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유능한 종으로 만들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 모든 것을 보시는 그분의 눈은 우리 위에 계시며 하늘에 계신 영원한 부모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는 확실히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자기 연민의 심연에 빠지지 말고 누가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지를, 곧 그분이 인생의 모든 폭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 제1회장단 제2보좌, “두려워 말라”, 리아호나, 2002년 10월호, 5쪽.

사소한 일보다는 좀 더 큰 일에 집중하려고 한다.

나는 지난 몇 해 동안 백혈병과 화학 요법 치료로 생긴 합병증을 겪으면서 받은 축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워졌고, 간증도 커졌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 해 주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이제 나는 회복 단계에 있고 통증도 줄었다. 관절을 사용하는 것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 치유 과정에서도 축복과 배움의 경험은 계속된다.

대체 왜 나지? 왜 하필 지금이지? 시련의 기간 동안 영적으로 성장했기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질문은 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역경을, 그리고 그에 따른 축복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

주: 엘리자베스는 회복 과정에 있으며 화학 요법 치료를 중단한 지 3년이 되었다. 관절도 낫고 있어 더 이상 휠체어를 타지 않는다. 아직 재발 위험이 있지만 그것에 연연하지는 않는다. 대신 대학교 1학년으로서 시험을 대비한 학업과 오보예와 잉글리시 호른 연습에 집중하고 있다.

“제 부모님은 교회 회원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 계명을 기억하십시오.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애굽기 20:12) 부모님이 바라는 것을 존중하는 가운데 복음을 가정 내에 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개인 발전 기록부나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관해 도움을 청하면 부모님은 훌륭한 교회 프로그램들을 접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교회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 편하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부모님과 복음에 대해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적기라고 생각될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함께 기도하자고 권하십시오. 그렇지만 강요하듯 하지는 마십시오. 교회 또는 교회 활동 모임에 참석하자고 하거나 가정의 밤을 하자고 권유하십시오.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존중하십시오. 지금 부모님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십시오.

항상 부모님에게서 좋은 점을 찾으십시오. 그분들을 사랑한다면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부모님은 여러분의 훌륭한 모범을 보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를 지켜보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리아호나 포스터를 이용하십시오



2006년에 침례를 받기 전까지 저는 가족과 함께 다른 교회에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리아호나에 실린 포스터를 집안 여러 군데에 붙여 두자 가족들이 “이 그림은 뒤에 관한 거니? 무슨 뜻이니?” 하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질문 덕택에 교회가 가족에게 어떤 것을 권하는지 이야기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막내 여동생이 침례를 받았고,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저에게 편지를 쓰실 때 교회 가는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알메이다 정로, 20세, 브라질 상파울루 동 선교부

복음대로 생활하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여러분의 생활 방식으로 부모님께 알려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복음대로 생활하고 총관리 역원의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경전을 읽으며, 교회에 참석하고, 계명을 지키며,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대로 생활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성신을 따르는 등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영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앤드루 비, 14세, 미국 네바다 주

대답들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옳은 말을 써서 부모님의 감정을 해치지 않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간구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제 진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구합니다. 물론경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나눕니다. 제 경험과 느낌을 나누기도 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영적인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주님의 일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영을 믿으십시오.

조나단 이, 19세, 멕시코 베라크루즈

여러분의 느낌을 설명하십시오



복음을 나누는 것이 두렵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경전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는지를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다는 것과 왜 복음을 좋아하는지를 설명하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바를 설명하면 부모님도 이해할 것이고 감정이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디슨 앤, 14세, 미국 일리노이 주

사랑을 담아 이야기하십시오

제 아버지는 회원이 아니라서 이따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면서도 배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제가 잘난 체 하지 않고 사랑을 담아 이야기하면 아버지도 제 말을 거부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아버지는 사랑을 느끼십니다. 둘째,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을 치장하거나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복음을 이야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페이지 아이, 19세, 미국 유타 주

마음의 변화

교회 표준을 따르고 모든 계명을 지키며, 특히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과 순종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부모님께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여러분의 행동에 주의를 돌리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사릴라 에스, 18세, 인도 카나타카

모범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훌륭한 모범을 보이면 부모님이 개종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적절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눌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갖고 모범을 보인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변화되고 부모님과 여러분의 삶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토누마이피 장로, 20세, 필리핀 카우아얀 선교부

다음 호 질문

“경전을 읽으려고 마음을 잡는 일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기 부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2010년 1월 15일까지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Questions & Answers 1/10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내용과 동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명(FULL NAME)

생년월일(BIRTH 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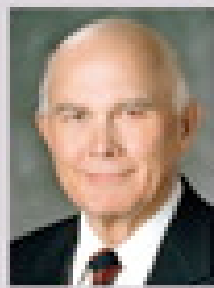
와드(혹은 지부)(WARD OR BRANCH)

스테이크(혹은 지방부)(STAKE OR DISTRICT)

나는 답변과 사진의 인쇄를 허가합니다.(I grant permission to print response and photo)

서명(SIGNATURE)

부모 서명(18세 미만인 경우)(PARENT'S SIGNATURE, IF YOU ARE UNDER 18)



주님의 방법과 시간

“우리의 행동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일은 그분의 사업이지 우리의 사업이 아니므로 우리의 방식과 시간이 아닌 그분의 방식과 시간에 맞추어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좌절과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만 우리 가족과 친구들 중에는 지금 복음에 관심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이 가장 쉽게 받아들일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실행하도록 주님의 인도를 받아 그들에게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복음을 나눈”,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8쪽.



어느 누구도 오늘날의 거친 취업 바다에서 홀로 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 내 교회 지도자 외에도 멕시코시티 취업 자원 센터에 있는 이들과 같은 전문가들은 유익한 지도를 해 줍니다.

일의 축복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감리 감독

일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이 시기에 일하라는 계명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 본 사람이라면 바다가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잘 압니다. 파도, 조수, 해류, 바람이 끊임없이 바뀌며 상호작용을 합니다. 노련한 항해사들과 어부들은 가야 할 곳으로 안전하게 가기 위해 파도와 조수를 타는 법을 배우고 바람과 해류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세상도 변화무쌍하며 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듯 합니다. 변덕스러운 이 세상의 거대한 밀물과 썰물이 변화하는 취업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해사들이 숙련된 기술과 해도, 기타 보조기구로 항해를 잘 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변화하는 취업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과 기술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찾는 데에도 능숙한 사람은 이 변화무쌍한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계명과 축복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일의 가치를 잊어 버렸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높은 목표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일하는 특권은 은사이며, 일하는 능력은 축복이고, 일을 사랑하는

것은 곧 성공임을 기억합니다.”¹

일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승영을 위해 일하십니다. (모세서 1:39 참조) 그분은 아담을 비롯하여 우리에게 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 (창세기 2:15)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타락 후 아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창세기 3:19)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이 계명을 지키면 기쁨을 맛 봅니다. 정직하게, 생산적으로 일하면 만족과 자존감을 얻습니다. 스스로 자립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한다면 주님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사, 재능, 관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관심을 아는 것은 직업 준비를 하는 데 첫 번째로 중요한 단계입니다. 제일회장단의 제1보좌이신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관심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그분의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부친이신 헨리 아이어링 교수님은 과학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과학계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물리학을 전공하라고 권했습니다. 유타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던 아이어링 회장님은 부친과 의논한 끝에 직업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아이어링 회장님은 부친에게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이어링 회장님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일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이 시기에 일하라는 계명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지하실에 보관하던 철판 앞에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설명을 멈추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문제를 공부했는데 그때보다 잘 이해하는 것 같지 않구나. 공부를 계속하지 않았던 거니?’”

무안해진 아이어링 회장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어링 회장은 부친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매우 미묘하면서도 가슴 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며, 제가 과학자가 되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물리학을 중단하는 게 좋겠구나. 네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도록 해라. 그것을 찾게 되면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 일만 생각하게 될 거다.’”²

훈련과 교육

스스로 자신의 관심과 능력을 고찰해 보고 또한 우리를 알려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조언을 얻었다면, 특히 주님에게서 조언을 얻었다면 그 직업 분야를 탐구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교육과 훈련은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배움을 사랑하십시오. 돈을 계속 저축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여러분의 기술이 늘 시장성을 갖추도록 선택한 직업에 대해 계속

교육을 받는 일은 중요합니다. 항해사가 날씨가 변하지는 않을지 살펴보기 위해 수평선을 주시하듯이 여러분의 직업을 계속 연마하는 일은 여러분의 분야에서 변화하는 상황을 탐지하고 적절하게 진로를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 받아들임

우리 중에 대양에 홀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큰 함대의 일부입니다. 군함에 수많은 보조 배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는 감독, 지부 회장, 상호부조회 회장, 정원회 회장, 취업 전문가, 그 밖에 우리가 계획을 진행하도록 도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도움에는 이력서 쓰기, 효과적인 구직 관리, 면접 기술 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지도해 주거나 각 상황에 맞게 훈련시키는 것이 종종 포함됩니다.

인맥 형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오래 전에 항해사들은 물이 얇아 위험한 곳, 새로운 경로, 공급 원천과 같은 것들에 관해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잘 모르는 수로에 들어서기 전에 항해사는 유용한 정보와 경험을 들려 줄 모든 사람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취업 환경에서 유용한 정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인맥을 쌓고 유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워드 또는 지부 지도자와 확대 가족은 좋은 시작점이 됩니다.

자녀에게 일하도록 가르침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는 자녀에게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어린 자녀는 집안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일에서 얻는 유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와 함께 일을 하고, 자녀를 자주 칭찬하면서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확신을 자녀에게 심어 줍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모범을 보며 일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인쇄업자였던 그분의 아버지는 평생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에도 보람 있는 휴식을 위해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나 이웃에게나 똑같이 봉사하며 계속 일했습니다.³ 그분의 어머니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항상 일했습니다. 몬슨 회장의 부모님은 종종 몬슨 회장님에게 어딘가에 함께 가자고 하거나 뭔가를 부탁해서 타인을 위해





항 해사가 날씨가 변하지는 않을지 살펴보기 위해 수평선을 주시하듯이 여러분의 직업을 계속 연마하는 일은 여러분의 분야에서 변화하는 상황을 탐지하고 적절하게 진로를 수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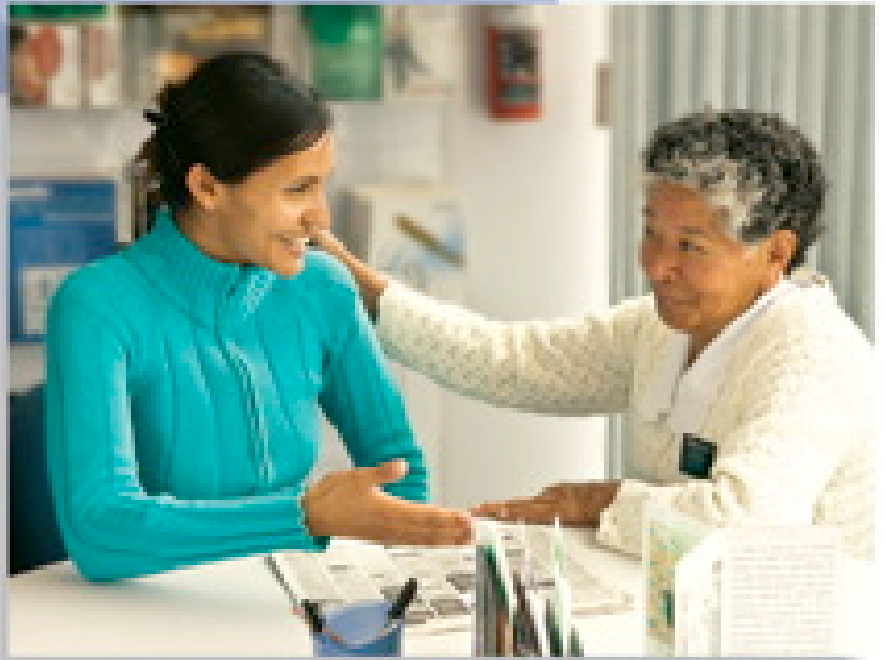
일하는 것을 직접 배우게 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부친으로부터 회사에서 일하는 법을 배웠으며, 열네 살 때 부친이 경영하던 인쇄소에서 처음으로 시간제 일을 해 보았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자신의 생애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일을 하지 않은 날이 많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어릴 때 일하기를 배우면 그 습관이 지속된다”⁴라고 말씀하십니다.

끈기로 얻는 축복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대부분의 일과 마찬가지로 취업 문제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인도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힘을 다하면 그분은 그 결과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제일회장단의 제2보좌이신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청남 시절에 가족을 위해 세탁물 배달하는 일을 했지만 그 일 말고 다른 일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가족을 도우려고 열심히 일했지만 세탁물을 실은 무거운 손수레를 자전거로 끄는 일은 그다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분은 힘들게 일한 그 경험에서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군에 징집될 즈음 저는 징집 대신 자원하여 공군에 들어가서 조종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저는 비행을 좋아했으며 조종사가 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종사가 되기 위해 저는 엄격한 신체 검사 등

미지의 바다로 들어서는 항해사가 그렇듯이, 구직시장에 들어서는 이들도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해 본 사람들에게서 조언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 취업 자료

- 와드 또는 지부 취업 전문가와 이야기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취직 자리를 소개해 주거나, 구직 기술을 훈련하거나, 직업 지도를 하거나 몇 가지 지역 사회 자료를 추천해줄 것입니다.
- 교회에는 전 세계적으로 취업 자원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지 알아보려면 신권 지도자에게 이야기하거나 www.providentliving.org 방문하십시오.
- www.providentliving.org 방문하여 면접, 이력서 쓰기, 인맥 형성 등의 기술에 관한 **구직 조인과 훈련**을 받으십시오.(영어만 가능)

많은 검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검사 결과를 약간 우려하며, 몇 가지 의료 검사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는 '십대 초반에 생긴 폐질환 같은 상처가 있지만 지금은 나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그 질환을 고치기 위해 제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검사를 받는 날까지만 해도 저는 제게 폐질환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세탁소 배달원으로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인 것이 이 질병을 고친 핵심 요소였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매일 자전거에 무거운 세탁물 수레를 매달아 우리 마을 길거리를 오르락내리락하며 끌고 다니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제트기 조종사와 747 항공기 기장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을 그때도 알고 있었더라면, 즉 시작부터 끝을 볼 수 있었더라면, 이런 경험들을 더욱 감사하게 여기며, 제 일을 훨씬 쉽게 했을 것입니다.”⁵

항해를 시작함

기회의 조수가 썰물처럼 보이고 바람과 해류가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이 경제적 동요의 시기에 주님께서 인간의 자녀에게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니파이전서 3:7) 아무 계명도 주지 않으신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도록 일하라는 계명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시는 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계명에 풀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니파이도 수평선 너머 펼쳐진 대양을 응시하고는 자신이 받은 계명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사막의 젊은이는 이제 배를 만들고 항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직업을 바꾼 것입니다. 니파이는 지시를 구한 다음 일을 하러 갔습니다. (니파이전서 17:8~11 참조)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왕국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며, 외로운 항해사가 아님을 기억하고 신앙으로 출항할 때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

주

1. 데이비드 오 맥케이, *Pathways to Happiness*(195년), 381쪽.
2. 제럴드 앤 렌드,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 인격이 형성됨”, *리아호나*, 199년 4월호, 28쪽 참조.
3. 토마스 에스 몬슨, *행복한 가정의 표시*, *리아호나*, 200년 10월호, 7쪽 참조.
4. 토마스 에스 몬슨, “Friend to Friend”, *Friend* 198년 10월호, 7쪽.
5.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시작부터 끝을 보십시오”, *리아호나*, 200년 5월호, 43쪽.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 보고

나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멕시코 베라크루즈에 있는 구티에레즈 자모라 와드에서 청년 회장으로 봉사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청년들과 청년 지도자들은 우리 와드의 나이 드신 회원들에게 드릴 음식을 만들었다.

2005년 성탄절이 다가오자 우리는 성탄절 노래를 연습하고 빨간색 모자와 목도리를 준비했다. 겨울이면 우리 마을에는 한결같이 이슬비가 내리고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지만 우리 열두 명의 청년 청년이 파인애플 파이를 들고 돌아다니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이 드신 형제 자매님들의 집을 찾아가서 우리는 정말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 잠깐이지만 노래와 파이로 행복을 선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각 집을 나섰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한 자매님은 여러 해 동안 저활동인 분이셨다. 후아니타 자매님을 만난 적이 있는 청소년은 아무도 없었지만, 남편과 나는 오랫동안 그분을 알고 지냈다. 불치병으로 몸져누워 지내시는 자매님은 몹시 가난하기도 했다.

집 앞에서 나는 자매님을 불렀다.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계속 불렀다. 그러자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와요, 아라셀리 자매님.” 자매님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서 슬펐지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 우리 노래에 후아니타 자매님은 생기가 도셨다. 자매님이 일어나 앉자 청소년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자매님은 깊은 감동을 받으셨고, 우리가 방문하여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기억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마워하셨다.

그 작은 집을 나온 후

청소년들은 자매님을 위해 노래를 불렀던 것에 감사해 했다. 몸이 젖고 추위에 떨었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마음은 조그마한 행복을 나누었다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제서야 이 성구가 더욱 완전하게 이해되었다.

우리 노래에 후아니타 자매님은 생기가 도셨다. 자매님이 일어나 앉자 청소년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돌보았고 …… 어느 때에 병드신 ……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36, 39~40)

며칠 후에 후아니타 자매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는 정말 슬펐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가 영을 따른다면 그분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 서로를 축복할 수 있음을 안다. ■

아라셀리 로페즈 레센디즈, 멕시코 베라크루즈

사랑으로 입는 옷

때 는 12월이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그분이 무한한 속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떠올리며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시기였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 세 자녀와 아름다운 아내가 성탄절과 관련하여 결정한 일을 한 가지 말해 주었다.

“올해에는 선물을 사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됐지?” 아이들은 일 년 내내 고대해 왔던 뭔가를 희생할 양이었다.

그러더니 바로 닳아 빠진 양복 두 벌을 찾아 가지고 왔다. “아빠, 성탄절

선물을 사는 데 쓸 돈으로 아빠가 새 양복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새 옷을 입고 출근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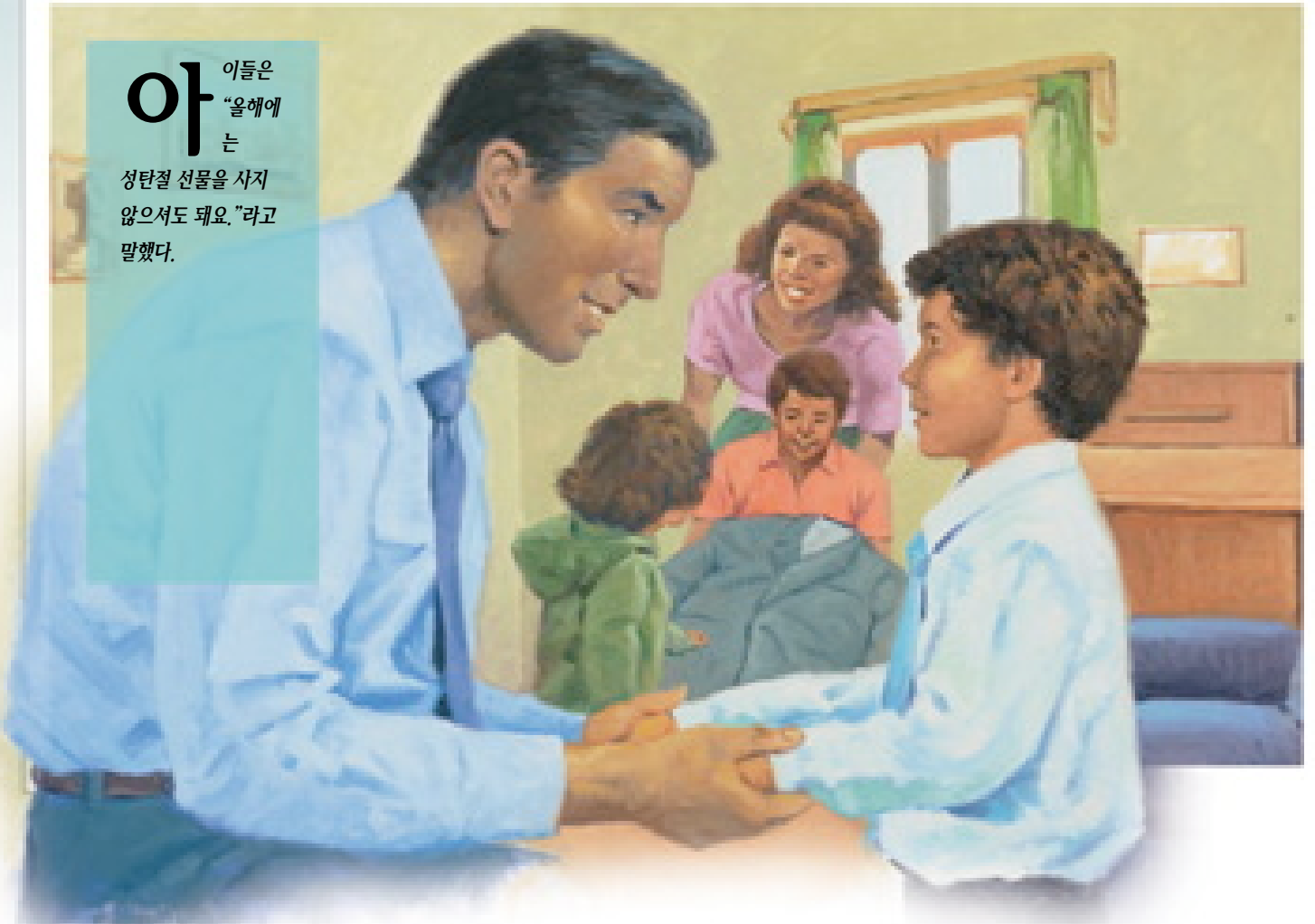
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탄절의 영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희생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속죄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그 후, 성탄절에 받은 새 양복을 입었을 때 나는 사랑으로 옷을 입는 기분이 들었다. ■

윌터 시로 칼메론 알, 콜롬비아 보고타

아 이들은 “올해에는

성탄절 선물을 사지 않으셔도 돼요.”라고 말했다.



교수님을 가르침

여 리 해 전 어느 가을에 나는 뉴욕 시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다. 학생들로 꽉 찬 큰 교실에서 교수님은 고대 문서의 현대 모방에 관해 강론했다. 교수님이 위작을 열거하면서 물문경을 언급하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뭔가를 하지 않고서는 그 교실을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물문경에 대한 간증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한 내 선조를 실망시킬 수는 없지 않은가.

수업이 끝난 후 나는 교수님에게 다가갔다. 그분은 컬럼비아 대학에서 찰스 안톤을 기리기 위해 만든 찰스 안톤 교수직을 맡고 있었다. 100년 전에 마틴 해리스는 컬럼비아 대학의 찰스 안톤 교수를 찾아갔다. 그때 마틴은 물문경으로 번역된, 금판에 새겨진 글씨를 그대로 베껴 쓴 종이 한 장을 들고 갔다.

내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마틴 해리스에 관해 편지를 쓰셨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마틴 해리스 형제가 사망하기 직전에 그를 만났다. 할아버지께서 그에게 물문경에 관해 묻자 마틴은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강하게 간증을 했다. 천사를 보았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으며, 금판을 보았다고 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교수님께 말했다. “제 이름은 다이애나이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물문경은 저에게 경전입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그 책을 위작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함께 교정을 거닐면서 교수님은 물문경을 읽으면서 찾은 몇 가지 결함을 말씀해 주셨다. 나는 황급히 그것을 받아



나 는 교수님께 말씀드렸다. “물문경은 저에게 경전입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그 책을 위작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적었고, 그분의 말씀이 끝나자 “그런 결함에 대한 관련 주제를 알아보고 그 내용을 적어 드려도 될까요?” 하고 물었다. 교수님은 좋다고 대답하셨다.

기숙사로 돌아온 나는 방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울었다. 무력하고 부족함을 느꼈다. 다행히도 그날 저녁에 교회 활동이 있었다. 토론을 하고 난 후 기분이 한결 나아졌고 나는 활동에 참석한 전임 선교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선교사들은 교수님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출처를 알려 주었다. 나는 거대한 컬럼비아 대학교 도서관을 헤집고 다니며 교수님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정리했다. 그리고 그 내용과 함께 물문경이 참되다는 간증도 적어서 교수님께 드렸다.

그러고는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며 몇 주를 보냈다. 결국 나는 교수님께 내가 드린 것을 읽어 보셨는지 직접 물었다.

“그럼, 읽었지. 그 종이를 아내에게 읽어 보라고 주었네. 아내가 말하더군.

‘당신이 무얼 하든 그 학생의 신앙을 망치지 마세요.’”

그러고는 교수님은 뒤돌아 가버리셨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나는 그 교수님에게 물문경을 주고 싶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나는 물문경을 구해서 간증을 덧붙이고 내 답지를 읽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적었다. 그런 다음 성탄절 포장지에 싸서 교수님께 드렸다. 그리고 얼마 후, 교수님은 나에게 “이 놀라운 책”을 주어서 고맙다며 손수 적은 편지를 주셨다.

편지에서 그 말을 읽고 내 눈엔 눈물이 가득 고였다. 영은 이 교수님이 더 이상 물문경을 조롱거리로 내세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속삭여 주었다. 나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고 교수님을 가르칠 방법을 알려 준 영이 고맙웠다.

■ 다이애나 서머헤이스 그레햄, 미국 유타 주

가장 큰 선물

어느 날 아침, 물몬경을 마지막 장까지 다 읽고 나서 생각에 잠겼다. 문득, 올해 말까지는 물몬경을 한 번 더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을 하다 보니 남동생이 떠올랐다. 2005년 당시에 나는 말기 암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남동생을 우리 집에서 보살피고 있었다.

남동생 올리버는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의 권고에 따라 그 해 말까지 물몬경을 다 읽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리라 굳게 마음먹었다.¹ 하지만 가을이 되었어도 여전히 읽어야 할 양이 많이 남아 있었다. 결국 올리버는 매우 쇠약해져서 혼자서는 물몬경을 읽을 수 없게 되었다.

결심이 확고했던 올리버는 내게 물몬경을 읽어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올리버보다

결 심이 확고했던 올리버는 내게 물몬경을 읽어 달라고 부탁했다.

진도가 훨씬 앞서 나갔지만, 동생이 남겨둔 부분부터 읽어 나가는 것도 좋았다.

나는 매일 올리버에게 물몬경을 읽어 주었고, 결국 동생은 그 해가 가기 전에 끝까지 다 읽겠다는 목표를 이루어냈다. 올리버가 숨을 거두기 불과 며칠 전이었다. 그 무렵 올리버의 말소리는 알아듣기도 어려운 상태였지만 정신만은 또렷하고 활기찼다. 올리버는 종종 자신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평안하게 죽을 수 있겠다고 내가 준 선물에 대해 온 힘을 다해서 고마움을 표시했다.

전에도 여러 번 물몬경을 읽었지만, 남동생의 목숨이 기울어가던 그 몇 달처럼 물몬경의 영이 강하게 느껴지고 가르침이 명확하게 이해되었던 적은 없었다. 올리버야말로 내게 더 큰 선물을 주었다. ■

로이스 앤 포프, 미국 유타 주

주

1. 고든 비 힝클리, "기슴 설레는 참된 간증", 리야호나, 2007년 8월호, 6쪽 참조.

제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죠?

2007년,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있을 때 두 아이는 패혈성 인두염과 중이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섯 살인 제이콥은 약국으로 가는 내내 칭얼거리었고, 19개월 된 베스는 내게서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약국에 다다르자 처방전 창구에 늘어선 긴 줄이 우리를 맞이했다. 제이콥이 내 다리를 잡아당기며 귀가 아프다고 투덜대는 동안 베스는 품 안에서 버둥거렸다. 가만히 있겠지 하고 내려놓았더니 베스는 곧바로 대기 줄 근처 벤치에 앉아 있던 한 노신사에게로 쏘르르 달려갔다.

그 사람은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내 줄을 지키려고 그 자리에서 베스를 불렀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몸을 굽혀 얼굴을 올려다보고는 생글거리며 킬킬 웃었다.

나는 제이콥을 시켜 동생을 데려오게



베스를
불렀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가서 몸을 굽혀
그를 올려다보고는
생글거리며 킬킬
웃었다.

했다. 제이콥은 베스의 손을 잡고 그 신사분에게서 떼어 놓으려고 끌어당겼지만 베스는 뿌리칠 뿐이었다. 그러더니 베스는 그가 고개를 들게 하려고 그 사람의 이마를 밀어 올렸다. 나는 애가 타기 시작하는데, 베스는 끈이 풀린 신을 벗어 그의 무릎 위에 밀어 넣었다. 그는 몸을 세워 바르게 앉더니 웃음을 지어 보였다.

“베스!” 하고 내가 불렀다.
“괜찮아요. 제가 신발 끈을 묶어 줄게요.” 지친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그가 베스에게 신발을 신기자 은근히 신경이 쓰였다. 신발을 다 신기고 나서 그는 베스를 감싸 안고 머리에 입을 맞추었다. 그가 천천히 베스를 내려 놓자, 나는 이 낯선 사람으로부터 딸을 되찾아오려고 재빨리 줄에서 빠져 나왔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염려가 되어 옆에 앉았다.

앞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는 말문을 열었다. “글쎄 말이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채 안 되었어요. 그런데 한 시간 전쯤 내가 말기 암이라는 사실을 알았네요. 이곳에 약을 타러 와서 내 인생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운명인데 이제 그만 끝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없이 성탄절을 보내며 암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다. “제가 어떤 이유로든 이곳에 있어야 한다면 지금 알려 주세요. 아니면 집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끝내버리겠어요.” “아멘”이라고 하기도

전에
베스가
“할아버지”
하고
부르며
방해한
것이다.

“이제
내가 왜
이곳에 더 있어야 하는지 알겠어요.
손자들을 봐서라도 살아야지요.
아이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니까요.” 하고
그는 말했다.

나는 팔을 벌려 그를 껴안고 울
수밖에 없었다. 약을 얻고 나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몹시 아파 보이던 베스가

그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안녕, 할아버지.” 하고 손을
흔들며 기분 좋게 우리와 함께
그곳을 나섰다.

성함도 묻지 못했지만 노인을
성가시게 하는 어린아이도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

메간 로빈슨, 미국 유타 주



이제 비밀이 밝혀집니다

성인

- 복음 고전 심층 분석
- 교회 지도자 메시지
- 지역 소식
- 결혼에 대한 권고

청년 독신

- 각자의 삶에 복음 적용하기
- 교회 지도자들이 전하고 싶은 내용

청소년

- 간증을 얻고 강화하는 방법
- 복음 질문에 관한 대답
- 다른 청소년들의 경험

새로운 리아호나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든지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한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 상황에 처한 회원들을 고려해서 더 많은 자료를

실었습니다.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복음 원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리아호나가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도자와 교사

-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교수법을 향상시키며 회원들에게 권고하는데 도움이 될 제언

새로운 회원

- 후기 성도 회원들이 믿는 바에 대한 간단한 설명
- 다른 새로운 회원이 전하는 개종 이야기

초등회

- 전 세계의 초등회 아이들의 그림과 사진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 복음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활동

가족

-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 *리아호나*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제언
-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 가정에 복음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가족 이야기
- 양육에 대한 제언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계속 구독해 주시고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밝히고 싶은 비밀입니다.



2010년 1월에 찾아 뵙겠습니다.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여기 나온 제언들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주기 위한 것이며, 가족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세 명의 왕들”, 12쪽: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이나 지도, 낱말 카드 및 그

밖의 시각 자료를 사용하여 개념을 나타내 보일 때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잘 배우고 더 오래 기억하게 된다.”¹ 이 기사를 가르칠 때 본문에 나오는 그림이나 다른 자료를 보여주는 것을 고려해 본다. 역할극도 여러 사람을 시각적으로 활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² 가족과 함께 이 기사를 공부하면서 박사들이 어린 예수를 방문하는 장면을 역할극으로 재연해 본다.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 26쪽: 가족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에게 교리를 가르쳐보면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하게 된다.³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이 기사에 나오는 원리를 가르쳐 보게 한다. 가정의 밤을 하기 며칠 전에 이 기사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가족 중 세 사람에게 각자 맡은 부분에서 배운 점을 가정의 밤 시간에 나누도록 부탁한다.

“일의 축복”, 36쪽: 이야기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므로 종종 효과적인 교수법이 된다.⁴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이 가르친 일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이 기사에 나오는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경험담을 나눈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삶에 축복을 가져온 ‘일’에 대한 경험담을 나누어 달라고 권하며 공과를 마친다.

주

1. 교사, 가장 중요한 부분(1999년), 168쪽.
2. 교사, 가장 중요한 부분, 171~17쪽 참조.
3. 교사, 가장 중요한 부분, 159쪽 참조.
4. 교사, 가장 중요한 부분, 93, 177~179쪽 참조.



이번 호의 주제들

페이지 수는 기사의 첫 페이지를 뜻합니다.

친 = 친구들	신권 열쇠, 18
가족, 2, 34, 친7	신앙, 12, 26, 30, 친2, 친10, 친12
경건, 26, 친4	스테이크 회장, 18
계시, 18	역경, 30
교육, 36	영적인 은사, 18
기도, 30, 45	예배, 26
노래하기, 10	예수 그리스도, 2, 8, 24, 친2, 친12
물문경, 43, 44	일, 36
방문 교육, 16, 25	자애, 25
봉사, 2, 10, 16, 25, 41, 44	직업, 36
사랑, 2, 10, 16, 34, 41, 42, 친4	조셉 에프 스미스, 친14
선교 사업, 34, 36	초등학교, 친4
성찬, 친12	활동화, 18
성탄절, 2, 8, 10, 12, 16, 24, 41, 42, 친2, 친8, 친10	희생, 42
속죄, 2, 24	



아버지의 책임

“정기적으로 가정의 밤, 가족 기도, 영적 시간, 경전 읽기와 기타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통해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여러분의 책임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선교 사업과 성전 결혼 준비를 특별히 강조하십시오. 형제님들, 여러분의 구원 다음으로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의 구원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1907~1995) 회장,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됨”,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49쪽.





사진 촬영: 매튜 라이더

FamilySearch는 가족 역사를 보존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FamilySearch 자원 봉사자, 과학 기술로 획기적 성과 거두다

헤더 휘틀 리클리, 교회 잡지

FamilySearch 자원 봉사자들은 온라인 색인 작업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2009년 말까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3억 2천 5백만 개 이상의 이름을 전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한 때 것처럼 짧은 기간에는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되던 숫자이다. 2006년에는 자원 봉사자 몇 천 명이 색인 작업에 매달려도 겨우 천백만 개에 해당하는 이름밖에 해내지 못했지만 지속적인 과학 기술의 발전과 5대륙에 걸쳐 십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 자원 봉사자들 덕분에 이제 매일 오십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름을 색인 작업할 수 있다.

FamilySearch 공보 책임자인 폴 노타 형제는 이런 속도라면 2010년 말까지 5억 개의 이름이 전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작업은 전 세계에 보관된 방대한 역사 기록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해마다 기록이 1억 개 이상씩(각 기록에는 다수의

이름이 있음)이나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는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기록을 보존하는 일만 해도, 현재의 기술로 수 년 동안 필름화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기록이 1년 사이에 만들어집니다.”라고 노타 형제는 말한다.

중요한 역사 기록을 온라인화하는 작업을 서두르기 위해 FamilySearch는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헌신적인 자원 봉사자들을 더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랫동안 교회 가족 역사부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작업하고 뛰어난 품질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 왔다. 이렇게 하여 가족 역사부는 특별히 고안된 디지털 카메라와 혁신적인 스캐닝 기술 및 새로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얻었다.

“이 분야와 기술에서 개척자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우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노타 형제는 말한다.



FamilySearch 자원 봉사자들은 최고급 맞춤 디지털 카메라와 교회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역사 문서와 기록을 저장한다.

기록 저장

작업에 맞게 개량한 디지털 카메라는 각 작업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 기록을 찾고, 작업을 하도록 허락을 받은 원본 이미지를 저장할 때 바로 이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한다.

교회 가족 역사부 직원들은 기록을 선택하고 어떤 출처에서 알아낼지 결정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기록을 얻는 일을 감독한다.

가족 역사부의 세 지역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가족 역사 사업을 책임지는 두에인 바슨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인간 가족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잘 고안된 절차 덕분에 우리는 얼마 안 되는 인적 자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록을 찾으면 가족 역사부 직원들은 사본을 얻거나 만들기 위해 여러 교회, 지자체, 기록 보관소 및 정부와 협력한다. 대부분의 단체들은 교회의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기록 보관자들만큼이나 기록에 관심을 갖는 조직이라는 훌륭한 평판을 얻었습니다. 역사 보존에 그렇게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우리와 같은 조직이 있다는 것에 그 기록 보관자들은 고마워합니다.”라고 유럽의 전략 관계 책임자인 스티븐 엘 워터스 형제는 말한다.

협약이 끝나면 카메라로 역사 문서의 디지털 이미지를 만들 지역이 현장에서 정해진다. 그 과정은 수집 규모의 크기와 복사될 문서 유형 및 작업자의 경험 수준에 따라 몇 주일에서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작업자들은 나사(NASA)와 그 밖의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카메라를 가지고 50메가픽셀, 즉 5천만 화소의 높은 해상도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교회 카메라 전문가들은 카메라 기술을 조정하여 내구성을 높인다.

가족 역사부의 카메라 작업 책임자인

래리 텔포드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일부 최고 품질의 카메라는 사진을 3십만 장 찍으면 수명이 다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 작업자는 일 년에 5십만 장을 찍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의 수명은 4, 5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카메라 외에도 각 세트마다 컴퓨터와 카메라스탠드 및 특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텔포드 형제는 “가족 역사부 기술진은 카메라 작업자가 쉬운 일을 하는 동안 어려운 일을 해낼 dCamX 소프트웨어를 고안했어요.”라고 말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교회 직원, 선교사,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계약자들은 카메라를 더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작업자가 카메라를 조정하여 단계별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컴퓨터에 연결하면 이미지가 처리되어 모니터에 뜨기 때문에 작업자는 선명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장된 모든 이미지는 자르기, 메타데이터 기록, 품질 관리 및 이미지 품질 보장을 위한 기타 개선 프로세스들을 포함하여 철저한 검사를 받는다.

일단 작업 하나가 완성되면 테라바이트급 이미지와 정보가 외장용 하드 드라이브에 전송되고, 이후에 솔트레이크시티로 보내져 이미지가 처리, 보존, 복사, 분류된다.

이미지의 활용 여부는 각 작업의 계약서에 따라 다르다. 많은 이미지들이 familysearch.org에 게시되며, 일부는 상업용 계보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때로는 기록 보관소가 직접 작업을 게시하며, 작업을 게시하되 접속자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워터스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결국, 우리는 기록을 직접 게시할 수도 있고, 게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온갖 장애물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은 기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다른 종류의 변환

최근 몇 년 동안 FamilySearch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2005년, 15개의 고속 스캐너로 기존 마이크로필름에 들어 있는 이미지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여 컴퓨터에서 볼 수 있도록 개발한 일이다. 이 스캐너로 교회의 화강암 동굴 기록 보관소에 있는 마이크로필름 2백 5십만 롤을 바로 색인이 가능한 수천 만 개의 디지털



수많은 웹 사이트 및 웹 기반 응용프로그램으로 가족 역사 사업에 더 잘 접속할 수 있다.

이미지로 변환이 가능하다.

이 마이크로필름에는 출생 및 사망 기록, 병원 기록, 가족 역사, 이민 형태, 역사 문헌 등 전 세계에서 수집한 중요 역사 문서 이미지가 들어 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FamilySearch와 같은 수준으로 신상기록을 보존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현재 FamilySearch에 있는 기록을 디지털화한다면 그 분량은 우리가 진행하는 기록 입수 작업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의회 도서관 132개본 또는 18페타바이트의 데이터와 맞먹을 것입니다.”라고 노타 형제는 말했다.

스캐너는 카메라와 같다. 마이크로필름을 풀면, 마이크로필름의 이미지는 고품질의 디지털 이미지가 담긴 긴 띠로 변환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 띠의 품질을 검사하고 각각의 이미지로 해체하기 위해 특수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마이크로필름에서 사진 원본을 스캐닝하고, 온라인 이미지 뷰어로 이미지를 볼 수 있게 준비하며, 품질을 검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롤당 겨우 18분이다.

전 세계에 전달함

FamilySearch Indexing.org는 가족 역사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새로 개발된 많은 웹 기반 프로그램 중 하나에 불과하다.

FamilySearch Labs(labs.familysearch.org)에는 아직 개발 중인 새로운 가족 역사

기술이 소개되어 있다. 사용자들이 기술을 시험해 보고 의견을 보내면, 그것을 토대로 개발자는 기술을 개량한다. 이 연구소는 지난 2년간 가족 역사 사업을 도울 여러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리서치 위키(wiki.familysearch.org)는 검색 전문가와 계보 학자들이 가족 역사 사업을 위한 자료검색 방법에 관해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이다.

기록 검색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기록의 디지털화 작업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수백 만 개의 역사 기록에 대한 접속권을 제공한다. 사용자들은 특정 지역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를 볼 수 있거나 기록을 서로 맞춰보기 위해 조상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인터넷 상에서 가능하다. (FamilySearch.org를 방문하여 기록 검색란으로 간다. Search Records를 클릭한 다음, Record Search pilot을 클릭한다.)

FamilySearch.org 포럼에서 다양한 수준의 전문기술을 지닌 수천 명의 사용자들은 온라인 토론을 통해 제법 기능, 조사 기법, 유익한 정보 또는 심지어 특정 지역의 특정 가족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

가족 역사부의 디지털 정보 처리 책임자인 폴 디 스타키 형제는 이것과 함께 다른 많은 프로젝트가 생겨나 가족 역사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괄목하게 발전한 그 기술로 어떤 사람이든 어느 곳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이런 종류의 사업을 돕는 놀라운 기술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가족 역사부가 개발한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는 FamilySearchIndexing.org에서 찾을 수 있다. 어느 때이든, 색인 작업 프로그램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35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사람들은 역사 문서 이미지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할 수 있고 이름, 날짜, 장소, 기타 정보를 검색 가능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기 위해 전사할 수 있다. 이 모든 정보는 FamilySearch.org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색인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가정용 컴퓨터가 색인 작업 응용프로그램(FamilySearchIndexing.or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실행에 필요한 요건에 부적합하다면, 세계 각국에 있는 4천 6백 곳 가족 역사 센터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서 응용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다.

FamilySearch 색인 작업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에 더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등 3개 언어가 4월 초에 새로 추가되었고 8월에는 스웨덴어가 추가되었다.

니카라과,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있는 세 명의 자원 봉사자는 니카라과 민간 등록 색인 작업 프로그램 중 스페인어로 기록된 자료 2백 5십만 개에 대한 색인 작업을 마쳤다.

노타 형제는 “우리는 손으로 필사하는 것에서부터 실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웹 기반 응용프로그램으로의 메일전송을 통해 CD에 디지털 이미지를 옮기기까지, 시작한 곳에서부터 획기적인 비약을 했습니다. 더욱 빠르고 신뢰할 만하며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기술의 진보와 색인 작업 자원 봉사자 수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10년 전에는 1만 2천 명의 자원 봉사자가 완수하는데 12년 걸리던 엘리스 섬 역사 기록을 지금은 3주면 색인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기술 밖의 것

기술 혁신 너머에는 작업을 서두르려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

매 순간마다 세계 도처에 있는 자원 봉사자 수 천 명이 FamilySearch 색인 작업을 하고 있다. 교회 회원이 아닌 봉사자도 많아지고 있다. 그들은 색인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데 기여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 기록 보존이 국가나 단체, 지역 사회의 정체성과 유산을 보존하는 임무이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의 정체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노타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이 일을

색인 작업 활동

멕시코 시코시티 제이라헤믈라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은 직접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

교회 소유인 멕시코 베네메리토 데 라 아메리카스 학교에서 공부하는 천 명의 청소년 중 6백 명 이상이 FamilySearch 색인 작업 프로그램 자원 봉사자로 온라인 상에서 봉사한다.

멕시코의 가족 역사부 지역 책임자인 로돌포 데르베즈 형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따금 빈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스테이크 회장님께 얘기했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천 명이 한 학기에 최소한 천 개의 이름을 색인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백만 개의 이름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드렸죠.”

일이 시작되면서 발생한 몇 가지 장비 문제를 해결한 후, 학생들은

4월에 색인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한 번에 세 가지 멕시코 프로젝트를 했다고 데르베즈 형제가 말했다.

불과 한 달 후에 자원 봉사 학생들은 이십만 개 이상의 이름을 색인화했으며, 일부 학생들은 수천 개의 이름을 작업했다.

이 속도로 청소년들은 9월 마감 시한까지 백만 개의 이름을 색인 작업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길 희망했다. 그들은 학기마다 또 다른 백만 개의 이름을 색인 작업할 것이다.



베네메리토 데 라 아메리카스의 학생들은 수백만 명의 이름을 색인 작업하고 있다.

사진: 브랜스 에르만 제단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풍성한 역사를 이어온 대가족의 일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이 현재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관한 것만이 아님을 빠르게 배웁니다. 가족 역사의 더욱 훌륭한 배경을 앞으로써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실천해야 할 더 중요한 것, 즉 우리의 역할을 다하여 성취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을 연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가족 역사의 진정한 가치와 유산을 성전에서 진행되는 구원 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장 큰 보상은 사람들이 Family Search 자원 봉사자들이 만든 색인 작업 덕분에 자신의 조상을 찾아 성전 사업을 행하는 데서 온다고 노타 형제는 말한다. 그는 “자신이 아는 조상을 위해, 또는 자신이 조사한 조상을 위해 사업을 하는 것에는 ……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 일에 참여하면 조상을 조사하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데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그들을 알게 된다고 할 수 있죠.”라고 말했다.

교회 회원들과 비회원들이 가족 역사 사업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다.

노타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경전에 나와 있어요. 엘리야의 영은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킬[것] (교리와 성약 2:1~2 참조)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은 “가족의 신성한 본질을 증거해 주는 성신의 나타나심”이다. (러셀 엠 넬슨, “새로운 추수의 시기”,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34쪽) ■



버락 오바마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집무실에서 (왼쪽부터)해리 리드 상원 의원, 종교 기반 시민 협력 기구의 조슈아 두보이스 이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와 만났다.

몬슨 회장과 옥스 장로, 미 대통령에게 가족 역사 사업 소개

7월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를 만나 여러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수백 년에 걸친 대통령의 가족 역사가 담긴 다섯 권의 가족양장 족보를 증정했다.

몬슨 회장은 이 자리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옥스 장로와 네바다 주 상원 다수당 원내총무인 해리 리드 형제를 동반했다.

몬슨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유산은 지도력과 희생, 봉사라는 풍성한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가족 역사를 조사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오늘 가족 기록을 선물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교회의 가족 역사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옥스 장로는 “교회는 계보 사업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자원과 경험이 있으며, 그토록 독특하고 감명 깊은 가족 역사를 조사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전 유타 주 대법원 판사였던 옥스 장로는 법에 대한 열정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대통령과 그분의 가족에게 우리 종교의 계보 연구 전통을 알려 주신 몬슨 회장님과 옥스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가족에 관해 깊은 관심이 있다는 점을 느꼈고, 우리 교회가 그들의 가족 역사를 문서화하는 데 기여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리드 의원은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익한 만남이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분들이 가져온 계보 기록에 감사하며 그 자료를 제

딸들과 읽기를 고대합니다. 참으로 우리 가족이 앞으로 소중히 여길 기록입니다.” 교회는 조지 더블류 부시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을 포함하여 다른 미국 대통령들에게도 개인 가족 역사를 선물해 왔다. ■

신임 성전 회장들, 봉사 시작

다 음 목록에 있는 신임 성전 회장들과 그 아내들이 제일회장단으로부터 임무 지명을 받고 2009년 11월 1일자로 봉사를 시작했다.(주: 본 목록이 작성된 후 추가로 성전 회장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추가 목록은 2010년 2월호 리아호나에 실릴 예정입니다.)

성전	신임 성전 회장 및 메이트론
나이지리아 아바	더글러스 엠과 캐롤 앤 로빈슨
가나 아크라	줄리언 피와 게이 에스 브레이랏
뉴멕시코 앨버커키	더블류 더글러스와 디시 제이 섬웨이
매사추세츠 보스턴	로버트 에스와 디시 존스 우드
유타 바운티풀	더글러스 엠과 지넷 엠 켈리스터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	존 알과 캐서린 이 김슨
앨버타 카드스톤	브렌트 엠과 바버러 닐슨

멕시코 치와와 콜로니아 후아레스	
	로버트 제이와 레킬 엘 웨튼
콜로라도 덴버	마크 에이와 제인 더블류 베어
독일 프랑크푸르트	피터 제이 지와 일로너 엘 버컨
일본 후쿠오카	아사오와 쿠미코 와이 미야시타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클레이트 더블류와 폴라 지 마스크
핀란드 헬싱키	캐리 제 에이와 올리 에이 하이클러
멕시코 소노라 에르모시오	지 패럴과 도러사 알 영

텍사스 휴스턴	디 채닝과 샬럿 엠 브렛소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브루스 엠과 바버러 제이 벨라드
필리핀 마닐라	모이세스 엠과 엠페로 에이 마번거
유타 맨타이	에드 제이와 패트리샤 피 피네커
애리조나 메사	대릴 에이치와 아이린 에이치 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산티아고와 로사 지 메하야 모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린 알과 엘마 돈 엠 셔트립
유타 몬터셀로	본 에이와 커렌 시 존슨
퀘벡 몬트리올	데이비드 비와 프리다 케이 켈브레이스
멕시코 오악사카	어돌포와 조세파나 에이치 아발로스 리코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시티	마이클 엠과 빅토리아 엠 사우스워드 ■

DVD, 구약전서를 생활 속으로 가져오다

이 제 우리는 더 쉽게 구약전서에 다가 갈 수 있게 되었다.

10월에 교회는 회원들이 구약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될 3백 개 이상의 시각자료가 실린 구약 시각자료 DVD를 공개했다.

작년에 교회 교육 기구가 사용하던 DVD를 이제 가정과 교회 공과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구약전서를 더 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첫 두 디스크에는 비디오, 쌍방향 도표, 후기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인용문 및 구약에 나오는 교리와 사건을 보충하는 그림이 실려 있으며,

시각자료가 수반된 성구 학습 활동은 개인이나 가족 또는 공과반에서 구약을

공부할 때 이해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세 번째 DVD는 구약 이야기 책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어린이들은 요셉, 룻, 엘리야, 요나,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듣고 삽화를 보면서 그



사람들과 직접 만나보게 될 것이다.

현재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이용할 수 있는 DVD가 내년부터는 25개 언어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구약 시각자료 DVD 세트는 미화 6.25달러이며 교회 배부 센터와 인터넷 lds catalog.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

파이퍼 장로, 세계 종교 회의에서 교회를 대표

2009년 7월에 칠십인이자 동유럽 지역 회장인 폴 비 파이퍼 장로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소집된 제3차 전통 및 세계 종교 회의(Congress of Traditional and World Religions)에 논문을 제출했다.

3년마다 열리는 이 회의는 여러 종교가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 대화하며 함께 일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03년에 개최되었다.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파이퍼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여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는

“위태로운 시대의 특별한 결속”이란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

파이퍼 장로는 구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도덕적 의무임을 상기시켰다.

“우리는 교회 전체적으로나 성도 개개인의 생활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순종, 사랑, 동정심, 그리고 봉사를 닦으려고 노력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파이퍼 장로는 다른 종교와 결속을 넓히기 위해 세 가지 지침이 되는 원리로, 예배를 선택할 권리, 모든 종파에 대한 우정, 가능한 곳에서는 세계

문제에 대한 통합된 접근을 하는 것을 제시했다.

파이퍼 장로는 회의 주최측에 찬사를 보내고,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세상을 만들도록 종교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종교 지도자와 함께 기꺼이 일하겠다는 교회의 바람을 전했다.

학계 및 정부기관 지도층 인사들을 비롯하여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신도(Shintoism) 및 조로아스터교를 포함하여 전통 종교에서 온 약 75개 대표단들이 참석했다. ■

방송 80주년을 맞다

서부의 교차로에서 시작한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7월로 80주년을 맞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방송 프로그램인 음악과 진리의 말씀 4,166회를 방송하며 청취자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그 획기적인 방송을 마친 후에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특별 축하행사에 참석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그 프로그램을 늘 자기 삶의 한 부분으로 여겼다면,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마음이 고양되었다고 치하했다.

아름다운 음악과 간략한 영적 메시지가 담긴 이 프로그램은 1929년 7월 15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처음으로 전파를 뒀다.

80년 동안 단 세 명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 바로 리차드 엘 에번즈(1930~1971), 제이 스펜서 키나드(1972~1990), 그리고 로이드 디



뉴웰(1990~현재)이다. 이들을 통해 음악과 진리의 말씀은 2천 번이 넘게 라디오, 텔레비전 및 케이블로 방송되며 성장해 왔다.

뉴웰 형제는 방송이 시작된 1929년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에도 이 프로그램은 세상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대의 문제는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때보다 더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음악과 진리의 말씀 방송 80주년을 축하했다.

소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음악과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잠시 구제를 받고, 괴로운 마음을 안정시키며, 삶의 기쁨을 키우는 희망의 횃불을 찾습니다.” ■

2009년 12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동회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9년 12월호
리아호나에 실린 함께
나누는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 및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친구들 12쪽과 13쪽에 나오는
"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거예요"를
참조한다.

1. 예수님은 가족 안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가족 안에서 태어나신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음악 지도자와 협의하여
노래 이야기를 준비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년 "해설이 있는
음악", 182~183쪽 참조) 이야기 속
인물을 나타내기 위해 어린이들에게
간단한 전통 의상을 입히거나 복음 그림
패킷에 있는 그림을 사용할 수 있다.

예: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다. 예수님
탄생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보내어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요한복음 3:16 참조) 구주에
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레이먼인인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명을
예언했다.(힐라맨서 14:1~6 참조)
물문경에 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한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녀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누가복음
1:26~35 참조)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돌보도록 그들을 선택하셨다.(마태복음

1:20~24 참조) 마리아와 요셉은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여행했다.(누가복음 2:1~5 참조) 성탄절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있는 어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분의 가족이 목을 여관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누가복음
2:6~7 참조) "그 어리신 예수"(어린이
노래책, 26~27쪽)를 부른다. 천사들과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다.(누가복음 2:8~16 참조)
"기쁘다 구주 오셨네"(찬송가, 130장)를
부른다. 예수님께서 신성하게
탄생하셨다는 점을 간증한다.

2.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복음
그림 패킷 238(재림)을 보여 준다.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권능과 영광 중에 오실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
준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어린이
노래책, 46~47쪽)를 부른다.
어린이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
준비됐을까" 구절을 반복하게 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대한 날이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열처녀와 등잔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셨다. 어린이들이
마태복음 25장
1~13절에 있는
이야기를 연극으로
해보도록 돕는다.
구주께서는 결혼을
그분의 재림에
비유하셨다고 설명한다.
현명한 다섯 처녀는
준비되었기 때문에

결혼식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준비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진흙이나 소금
반죽(만드는 법은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67쪽을 참조한다.)을 사용하여 손으로
컵 모양을 했을 때 그곳에 들어 맞도록
조그만 그릇을 만들게 한다. 이것은 열
처녀가 사용한 고대 등잔과 크기와
모양이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름
등잔은 기름이 없으면 빛을 낼 수 없다고
강조한다. 각 어린이에게 나의 복음
표준을 복사해서 주고 그 표준대로
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교사들에게 자기 반원들과
함께 표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각
어린이가 다음 주 동안 실천할 표준 한
가지를 택하도록 도와주라고 한다.
기름을 나타내기 위해 콩이나 작은
조약돌을 마련한다. 교사들에게 어린이가
선택을 하면 그 등잔에 하나씩
넣어주라고 한다. 어린이들에게 열처녀의
이야기를 가족에게 들려주고 콩이나
조약돌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함께
나누도록 권유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간증을 전한다. ■

